

선화 상인 宣化上人

“십법계는 마음의 한 생각과 다르지 않다”

십법계불이일념심(+法界不離一念心)

The Ten Dharma Realms Are
Not Beyond A Single Thought.



선화 상인의 1972년 법문 (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산선사)

Explained by the Venerable Master Hsuan Hua in 1972
at Gold Mountain Dhyana Monastery, San Francisco, U.S.A.

원문: BTTS의 영어 번역문

English translation by the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최종검토: 2021년 11월

(이 제본물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선화 상인 宣化 上人

The Venerable Master Hsuan Hua

선화 상인 (宣化 上人, 1918~1995)은 안 쭈 (An Tzu) 그리고 투 룬 (Tu Lun)의 이름으로도 알려진 선사이다. 선화 상인을 위양종 (滙仰宗) 법맥을 법인(法印)함을 승인함에 따라, 허운 선사 (1840-1959)는 선화 상인에게 전법(傳法)명인 “선화 宣化”를 수여하였다.

The Venerable Master Hsuan Hua was also known as An Tse and To Lun. The name Hsuan Hua was bestowed upon him after he received the transmission of the Wei Yang Lineage of the Chan School from Venerable Elder Hsu Yun.

선화 상인은 마지막 지난 세기 초 만주 지역에서 태어나서, 19세에 출가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묘지 옆에 수수 줄기로 오두막에서 참선하며 삼년상을 하였는데, 그때 참선하면서 염불을 하였고, 여러 수행 중 일종식(하루에 한번만 먹는 것)과 장좌불와(잘때 눕지 않는 것)을 하였다.

Venerable Master Hua was born in Manchuria in the beginning of the last century. He left the home life at the age of nineteen.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he lived in a tiny thatched hut by her graveside for three years, as an act of filial respect. During that time, he practiced meditation and studied the Buddha's teachings. Among his many practices were eating only once a day at midday and never lying down to sleep.

그는 다양한 청정 수행을 하였으며, 허운 화상과 같은 여러 대덕 고승과 공부하기 위해 여행을 하였다. 선화 상인은 1948년 홍콩에 도착하여, 불교 강당과 여러 사찰을 설립하였으며, 1962년 미국과 서양에 정법을 가져와서 대승불교의 주요 가르침을 널리 강설하였다.

He cultivated various practices of purity and traveled to study with various eminent and virtuous monks, such as the Venerable Elder Hsu Yun. In 1948 the Master arrived in Hong Kong, where he founded the Buddhist Lecture Hall and other monasteries. In 1962 he brought the Proper Dharma to America and the West, where he lectured extensively on the major works of the Mahayana Buddhist canon.

그는 일만번이 넘는 법문을 해내면서, 미국 내에서 삼보(三寶)를 세운 첫번째 인물이다. 선화 상인은 수년에 걸쳐 법계불교총회(法界佛教總會, DRBA)와 그와 연계된 수많은 사찰과 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는 서양인과 동양인 제자들에게 법(法)을 일상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불경을 번역하도록 가르치고,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법계총회에 속한 도량의 승가 일원들이 불법을 진정으로 수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Delivering more than ten thousand lectures, he was the first person to establish the Triple Jewel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years, the Master established the Dharma Realm Buddhist Association (DRBA) and its numerous affiliated monasteries and centers. He taught both Western and Asian disciples to apply the Dharma in daily life. He also taught disciples to translate the canon and set up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e guided the Sangha members in DRBA monasteries to truly practice and uphold the Buddhadharma.

선화 상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995년 6월 7일 돌아가셨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비탄에 젖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고결한 본보기는 늘 기억될 것입니다. 평생 그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심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자비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바로잡도록 감흥을 주었으며,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效仿 선화 상인이 쓰신 창베이 탁발승의 계송長白乞士書を 여기에 넣었습니다.

The Master passed into stillness on June 7, 1995, in Los Angeles, U.S.A., causing many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o mourn the sudden setting of the sun of wisdom. Although he has passed on, his lofty example will always be remembered. Throughout his life he worked selflessly and vigorously to benefit the people of the world and all living beings. His wisdom and compassion inspired many to correct their faults and lead wholesome lives. Here we include the Verse of the Mendicant of Chang Bai written by the Venerable Master to serve as a model for all of us to emulate. **Is the verse supposed to be here?**

창베이의 탁발승은 간결하고 정직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늘 간절하게 사람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 싶어했습니다. 법을 위해 스스로를 잊고,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에 따라 약을 나눠주고, 자신의 골수와 피부도 내놨습니다. 그의 서원은 수백만의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이, 동서남북의 구분도 갖지 않고, 무수한 잠재를 모음有緣的眾生으로써 그 수행이 허공虛空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The Mendicant of Chang Bai was simple and honest in nature. He was always eager to help people and benefit others. Forgetting himself for the sake of the Dharma, he was willing to sacrifice his life. Bestowing medicines according to people's illnesses, he offered his own marrow and skin. His vow was to unite as one with millions of beings. His practice pervaded space as he gathered in the myriad potentials, Without regard for past, future, or present; With no distinctions of north, south, east, or west.

통역자와 봉사자를 위한 여덟 가지 가이드라인

The Eight Guidelines for Translators and Volunteers:

통역자와 봉사자는 개인적 명예나 평판을 위한 동기가 없어야 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free themselves from the motives of personal fame and reputation.

통역자와 봉사자는 교만과 자만에서 해방되려는 태도를 수양해야 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cultivate an attitude free from arrogance and conceit.

통역자와 봉사자는 자신을 과장誇讚하고, 다른 이는 헐뜯는 것을 삼가야만 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refrain from aggrandizing themselves and denigrating others.

통역자와 봉사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확성의 기준으로 삼거나 다른 이의 잘못을 찾아서 그들의 일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not establish themselves as the standard of correctness and suppress the work of others with their fault-finding.

통역자와 봉사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처럼 여겨야만 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take the Buddha-mind as their own mind.

통역자와 봉사자는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 택법안의 지혜를 사용해야만 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use the wisdom of the Selective Dharma Eye(擇法眼) to determine true principles.

통역자와 봉사자는 시방의 원로 대덕(大德) 스님들께 반드시 번역물의 증명을 청해야 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request the Elder Virtuous Ones of the ten directions to certify their translations.

통역자와 봉사자는 번역물이 옳다고 인증되면 경장(經藏, 부처님이 설한 문서), 논장(論藏, 선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 율장(律藏, 승가와 재가자를 위한 모든 계율에 관한 가르침)을 인쇄하여 불법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Translators and volunteers must endeavor to propagate the teachings by printing sutras (scriptures of what was spoken by the Buddha), shastras (commentarial texts written by masters of the teachings), and vinaya texts (all the precept teachings for monastics and laypeople) when the translations are certified as being correct.

개경계 開經偈 (경을 여는 계송)

Verses for opening a Sutra

무상심심미묘법 無上甚深微妙法

(능가할 수 없고 심오하고 미묘한 법)

The unsurpassed, profound, subtle and wonderful Dharma,

백천만겁난조우 百千萬劫難遭遇

(백천만겁 만나기 어려운데)

In a hundred thousand million aeons, is difficult to encounter,

아금견문득수지 我今見聞得受持

(이제 내가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받아 유지할 것이니라)

Now that I am able to see and hear, I will receive and maintain it,

원해여래진실의 願解如來真實義

(여래의 진실한 뜻을 헤아릴 것이라 서원한다.)

I vow to fathom the Thus Come One's true and actual principles.

십법계는 마음의 일념과 다르지 않다. 十法界不離一念心

십법계(十法界)는 마음의 한 생각(一念)과 다르지 않다. 십법계는 어디서 왔는가?

The Ten Dharma Realms are not Beyond a Single Thought. Where do the Ten Dharma Realms come from?

게송 Verse:

약인욕료지 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 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 應觀法界性 여래유심조 如來唯心造

만약 누구든 과거 현재 미래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觀)해라; 여래는 오직 마음이 지어내었다.

If anyone wishes to understand, All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He should contemplate the nature of the Dharma Realm; The Tathagatas are made from the mind alone.

주석 Commentary:

「약인욕요지, 삼세일체인 ; 응관법계성, 여래유심조.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人 ; 應觀法界性, 如來唯心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웃고 있죠? 안 그런가요?

「약인욕요지」 만약 누구든 이해하길 소망한다면 若人欲了知.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이해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IF ANYONE wishes to understand. Suppose there are people who wish to understand how people become people.

삼세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인간 , 三世一切人. “삼세일체불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삼세의 모든 인간”이라고 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곧 부처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처님이든 사람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보리(菩提) 즉 깨달음을 얻은 한 인간인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뭔가요?”라고 묻습니다. 누구나 인간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ll people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Shouldn't it be 'all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Why did you say 'all people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you ask. People are Buddhas. If you call a person a Buddha, that's okay; and if you call the Buddha a person, that's okay, too. Why is this? Because a person can become a Buddha. A Buddha is just a person who has realized Buddhahood. If you talk about Buddhas, no one really understands. "What's a Buddha?" they ask. Everyone knows what a person is. So we'll talk about people, and it will become easier to understand.

우리가 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처님들입니다.

“내가 부처인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부처인가요?”

Who are the people we're discussing? The Buddhas.

"Am I a Buddha?" you ask. You are.

"Are other people Buddhas?"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처입니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하지만 아직 깨달지 못한 부처님입니다. 깨달은 후에 당신도 역시 진정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짜 부처님입니다. 가짜 부처가 진짜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 삼세제불(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이해하길 원한다면 - 이 구절은 “만약”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가정적인 상황임을 뜻합니다; 이 말에 집착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세제불은 보리를 얻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Yes, they are too. You are a Buddha, but an unrealized Buddha. After your realization, you will become a true Buddha. Now you are a false Buddha. False Buddhas can become true Buddhas, and true Buddhas can become false Buddhas. If anyone wishes to understand / All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The verse starts with the word "if " to indicate that this is only a hypothetical situation; don't be attached and think that it's real. The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are just people who have realized Buddhahood.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觀)해야 한다 應觀法界性. 어떻게 법계에 “성품性”이 있을까요? 만약 법계에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이를 법계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걸 사실 법계에 있는 중생의 자성을 뜻합니다. 법계의 각 중생은 모두 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성이 있고, 나도 나의 자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난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성질이 있잖아” “난 마음이 당신보다 깊으니 내 자성은 다를거야”

He should contemplate the nature of the Dharma Realm. How can the Dharma Realm have a nature? If it had a nature, how could it be called the Dharma Realm? Actually, this refers to the nature(自性) of the living beings in the Dharma Realm. Every living being of the Dharma Realm has its own nature. You have your nature, and I have my nature. "I don't know what you mean by 'nature'." You say. Well, your temper is bigger than mine; and mine is deeper than yours. Thus, our natures are different.

법계(法界)의 모든 중생은 각각 자성(自性)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는 돼지의 자성이 있고, 말은 말의 자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자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자성이 있습니다. 각자 모두 자성이 있습니다. 달콤한 걸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달콤한 자성이 있고, 신 것을 먹는 걸 좋아하는 이는 시큼한 자성이 있고, 뜨겁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뜨거운 자성이 있습니다.

Each living being in the Dharma Realm has its own nature. Pigs have the nature of pigs; horses have the nature of horses. Men have the nature of men, and women have the nature of women. Each has his or her own nature. Those who like to eat sweet things have a sweet nature; those who like to eat sour things have a sour nature; those who like hot, spicy things have a hot nature.

쓴 것을 먹기를 좋아하는 이는 여기 우리 모두와 같이 씹쓸한 자성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쓴맛(苦)은 고행(苦行)의 고(苦)자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고행 수행을 합니다. 먹기 위해 공양간에 가는 것도 고행입니다. 고행할 때, 누구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모두 앞서 가야 합니다. 먹는 것도 고행인데 여러분 모두 앞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Those who like to eat bitter things have a bitter nature, like all of us here. [Note: In Chinese, the same character means both 'bitter' and 'ascetic.'] We cultivate ascetic practices. Cultivation is ascetic practice; even going to the dining hall to eat is an ascetic practice. When it comes to ascetic practices, none of you should fall behind. You should race toward the front. In the "ascetic practice" of eating, all of you race toward the front, don't you?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자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도 그 자성이 있고, 꽃도 그 자성이 있으며, 풀도 또한 그 자성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에 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성”이란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 각자가 본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제 이해가 되었나요? 전에 여러분이 법계도 자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이것이 법계의 모든 중생의 자성을 뜻함을 알게 되었지요.

If you look into it, you'll find that everything has its own nature. Trees have the nature of trees; flowers have the nature of flowers; grass has the nature of grass. Each thing has its own nature. So "the nature of the Dharma Realm" refers to the nature of each living being in

the Dharma Realm. Do you understand? Previously you thought that the Dharma Realm had a nature, but now you know this is referring to the nature of living beings in the Dharma Realm.

여래가 오직 마음에서 지어졌다 如來唯心造. 화엄경의 본래 글에서는 “누구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觀)해서 모든 것(일체)은 오직 마음이 지었다”입니다. 나는 두 번째 줄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삼세의 모든 사람 그리고 나는 마지막 줄도 여래가 모두 마음에서 지어졌다고 바꿨습니다. 부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불법을 수행한다면, 여러분도 부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살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도 보살도(菩薩道)를 수행할 수 있고,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에 떨어지길 원한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The Tathagatas are made from the mind alone. The original verse from the Avatamsaka Sutra said: If anyone wishes to understand / All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 He should contemplate the nature of the Dharma Realm; / Everything is made from the mind alone. I changed the second line to say, All people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and I also changed the last line to The Tathagatas are made from the mind alone. Buddhas are created from the mind. If your mind cultivates the Buddhadharma, you will become a Buddha. If your mind likes the Bodhisattvas, you can practice the Bodhisattva Way and become a Bodhisattva. If your mind wants to fall into the hells, you are bound to fall.

十法界不離一念心

你心若是修佛法，就成佛道；你心歡喜菩薩，就行菩薩道，成菩薩。

◎一九七二年宣化上人講於美國加州三藩市金山禪寺

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如來唯心造。

「若人欲了知，三世一切人；應觀法界性，如來唯心造。」你笑我念錯了？是不是？

「若人欲了知」：若，是假設。人，就是一切的人。欲了知，欲了知個什麼呢？欲了知——人怎麼樣做人。

「三世一切人」：說「我聽說是『三世一切佛』，師父怎麼念成了『三世一切人』呢？」人就是佛嘛！人，你叫他「佛」，也可以的；佛，你叫他「人」，也可以的。為什麼呢？人，可以成佛；佛，是人成的。所以你若說是「佛」呢？沒有人懂。「什麼叫『佛』啊？」沒有人真正知道。你若說是「人」呢，人人都知道是有個「人」。那麼知道有個「人」，就好辦啦，也容易了。

這個「人」是誰呢？就是「佛」。說那我是不是佛呢？你也是佛；他是不是佛呢？他也是佛；我是不是佛呢？也是佛，卻是還沒有成的佛。成了之後，那是一個真佛，現在是個假佛。假佛也可以做真佛，真佛又可以做假佛。所以為什麼說一個「若」字呢？這個若，就是一個假設之辭，你不要那麼固執，把它看得那麼認真。所以說，假設你這個人，要明白、要了知「三世一切佛」。三世一切佛，都是人成的。

「應觀法界性」：你應該看看這個法界性。不是說那個法界的性，法界有什麼性啊？法界若有了性，那還叫法界嗎？這說的是法界的眾生性，眾生啊！各人有各性，你有你的性，我有我的性。說這個性，你不知道。你的脾氣就比我大一點，我的脾氣就比你深一點。你說是不是？不一樣的。

這法界的眾生，各有各性。豬有豬性，馬有馬性。豬，牠就姓豬；馬，就姓馬；牛，就姓牛。各有各「姓」，那是姓名的姓。這是性格的性，男人有男人的性，女人就有女人性，各有其性。那麼有的歡喜吃甜的，這是有個甜性；有的歡喜吃酸的，就有個酸性；有的歡喜吃辣的，就有一個辣性。啊！有的歡喜吃苦的，那麼我們大家就有一個苦性在這兒，你說是不是呀？我們行苦行。一行苦行，這個修行也是苦行；到了過堂吃飯的時候，也是苦行。行那苦行呢，大家就都不要落到人後邊，要跑到前面去，那麼過堂那個苦行，誰都要跑到前面去，你看是不是？

你研究研究，各有各性。樹也有樹的性，花有花的性，草有草的性，各有其性，所以說「法界性」。不是說那個法界有性，是法界的眾生性。你們現在明白了沒有？以前你們都以為是法界性，現在是那法界之中的眾生性，所以才說「應觀法界性」。

「如來唯心造」：本來說「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唯心造。」我因為前面講「三世一切人」，現在最後一句，就給它改成「如來唯心造」。佛，就是由你心造成的。你心若是修佛法，就成佛道；你心歡喜菩薩，就行菩薩道，成菩薩。乃至於你心願意墮地獄，你就往地獄那兒跑，將來就墮地獄了。

불법계 佛法界

The Dharma Realm of Buddhas

계송 Verse:

불대불소 不大不小 비거비래 非去非來

미진세계 微塵世界 교영연대 交映蓮臺

크지도 작지도 않고, 가시지도 오시지도 않는다.

티끌과 먼지만큼 많은 세계, 연대(연꽃대)에서 서로 빛을 비춘다.

Neither great nor small, Neither gone nor come,

In worlds as many as motes of dust, They shine upon each other from their lotus thrones.

주석 Commentary:

첫 번째 법계는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내가 한번은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에서 법문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처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난 워낙 느리고 약간 귀도 어두워서 그런지 영어로 '부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부~다(不~大)'로 들렸습니다. 그건 중국어로는 '크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크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한 교수님이 내 설명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법문을 마쳤을 때, 합장하고 나에게 '부~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Dharma Realm is that of Buddhas. I once gave a lecture in Redwood City (California) in which I explained the word "Buddha." Because I'm quite dull and a bit deaf, when I first heard the word Buddha" in English, I heard it as bu da, which means "not big" in Chinese. What is "not big"? The Buddha. One professor liked my explanation so much that when I finished my lecture, he put his palms together and said to me, "Bu da."

'크지 않다'는 오만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항상 '나! 나! 나!'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부처님은 '나' 즉 아상이 없습니다. '나, 나, 나' 모든 것이 '나'입니다. 오른쪽, 앞, 뒤, 위, 아래, 사방이 모두 '나'입니다. '내'가 너무 많고, 자기 자신이 너무 커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無我)이니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작으셨을까요? 아니요. 부처님이 작으셨다면, 부처님이 아니겠죠. 부처님께서서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십니다 不大不小.

"Not big" means not arrogant. The Buddha is not arrogant or haughty. An arrogant person is

someone who is always saying, "I! I! I!" The Buddha doesn't have an "I," an ego. "Me, me, me"—everything is "me." Everything to the right, left, in front, back, above, below, and throughout the four directions is "me." There are too many "me's," and so the self becomes big. The Buddha, being selfless, is "not big." Then is he little? No. If he were little, he wouldn't be a Buddha. He is neither great nor small.

가시지만 오시지도 않는다 非去非來. 부처님께서는 ‘오셨으나 아직 오지 않았고, 가셨지만 아직 가시지 않았다’. 부처님의 법신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법계를 스며들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도, 계신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 부처님께서 어디를 가신 걸까요? 부처님께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어디에 오셨나요? 부처님의 법신(法身)은 그저 우리 세상에 스며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는 먼지와 티끌만큼 많은 세계를 포함하며, 무량무변(한없이 많고 넓게) 많은 세계는 모두 부처님의 법신[法身]입니다.

Neither gone nor come. The Buddha has "come and yet not come, gone and yet not gone." Since the Buddha's Dharma-body fills all of space and pervades the Dharma Realm, it is neither absent nor present. You may speak of the Buddha as going, but to where does he go? You might say he comes, but from where does he come? Nor does his Dharma-body merely pervade our world; the Dharma Realm includes as many worlds as there are motes of dust—limitlessly, boundlessly many worlds—all of which are the Buddha's Dharma-body.

먼지와 티끌처럼 많은 세계 微塵世界. 연대(연꽃대)에서 서로 빛을 비춘다 交映蓮台. 이 법계의 부처님께서는 다른 법계의 부처님에게 빛을 비추시고, 저쪽 법계의 부처님께서는 빛은 이쪽 법계를 비추십니다. 연대(연꽃대)에 앉아서, 부처님들께서는 일제히 지구를 움직이고, 귀, 눈, 코, 혀, 치아에서 빛을 내십니다. 부처님의 여섯 개의 장기에서 빛이 나오고, 지구를 움직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모든 모공도 빛을 내고,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모공에서, 먼지와 티끌만큼 많은 세계에 각각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셔서, 이처럼 빛을 냅니다.

In worlds as many as motes of dust. They shine upon each other from their lotus thrones. The Buddha in this Dharma Realm shines his light upon the Buddha of another Dharma Realm, and the light of the Buddha in that Dharma Realm illumines this Dharma Realm. Sitting on lotus thrones, the Buddhas simultaneously move the earth and emit light from their ears, eyes, noses, tongues, and teeth. Not only do their six organs put forth light and move the earth, their every pore emits light and moves the earth. And in every pore, worlds as numerous as motes of dust appear, each containing incalculable numbers of Buddhas who emit light in the same way.

하지만 모든 이런 빛은 여러 개 램프의 빛과 같아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램프 하나가 다른 램프에게 ‘너는 너무 빛을 많이 내지 말아라; 내 빛이 갈 곳이 없잖아’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빛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함께 결합합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빛을 모두 함께 연합합니다. 많은 빛이 서로 다투지 않는 것처럼 두 사람이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이 대범천왕의 나개 망라당(那個網羅幢)처럼 서로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세계, 불법계입니다.

Yet all these lights, like those of many lamps, do not contend. One lamp doesn't say to another, "You can't give off so much light, because my light has nowhere to go." The lights don't clash with one another; they fuse together. In Buddhism, we unite our lights. Just as lights do not conflict with one another, so too should people not clash. We should allow our lights to shine on one another like the lights interpenetrating at the interstices of the infinitely-layered circular net canopy of the Great Brahma Heaven King. That's the Dharma Realm of Buddhas.

보살법계 菩薩法界

The Dharma Realms of Bodhisattvas

계송 Verse:

유정각오 有情覺悟 도출진애 跳出塵埃

육도만행 六度萬行 시각배재 時刻培栽

유정이 깨달으면, 진애(번뇌)에서 튀어나오고,

육도만행(육바라밀과 일만가지 수행)이 시시각각 배양된다.

Sentient beings when enlightened, Leap out of the dust.

Their six perfections and ten thousand practices, At all times are nurtured.

주석 Commentary

두 번째 법계가 보살계입니다. 내가 왜 삼세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수행하면 십법계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의 한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The second Dharma Realm is that of Bodhisattvas. Why did I say All people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above? It's because people can cultivate to go to any of the Ten Dharma

Realms. Yet people are not beyond a single thought of the mind.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즉 보살)는 ‘깨달은 자(覺有情)’로 해석되며,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The Sanskrit word Bodhisattva is translated as "enlightened being" and has two meanings:

1. 모든 유정有情으로 하여금 깨닫게하는 자

one who causes all sentient beings to become enlightened

2. 모든 유정 중 깨달은 자

an enlightened one among all sentient beings

** 유정有情: 마음이 있는 중생.*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에 모두 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생이므로 보살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들 중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다른 중생이 깨닫도록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된다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살菩薩道の 몫이 있을 뿐 아니라, 부처佛道の 몫도 있습니다.

We are included in both meanings. We all have a share of Bodhisattvahood because we are all beings有情的眾生. We can become enlightened ones among beings, and we can teach other beings to become enlightened as well. So being a Bodhisattva isn't bad. Not only do we have a share of Bodhisattvahood, we also have a share of Buddhahood.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사(法師)님 예전에 부처가 이미 깨달은 자를 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보살은 부처가 아닌가요?”

** 본래 법사(法師)란 불법에 통달하고, 가르치는 승려를 뜻합니다. 중국에서 법사는 스님들을 부를 때만 사용합니다.*

"I don't get it," you say. "Dharma Master, you said earlier that Buddhas are just people who have realized Buddhahood. Well, why haven't we become Buddhas?"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맙시다.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불법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불교에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간난 아이에게 우유가 필요하듯 우리도 법을 듣는 양육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특히 청법 즉 법을 듣는 것이 선근(善根)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지혜를 일으키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법(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벌 수 있는 어떤 액수의 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Let's not talk about people becoming Buddhas. Consider a small child who grows up, becomes an adult, and eventually gets old. We are like children within the Buddhadharma, and the Buddha is an adult. When we grow up, we will become Buddhas. But right now, we are still children in Buddhism. As youngsters need milk, we constantly need the nourishment of hearing the Dharma. Listening to the Dharma is an especially good way to make our good roots grow and to bring forth our wisdom. An opportunity to listen to the Dharma is more valuable than any amount of money you could earn.

오늘 나는 규칙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휴가를 많이 가거나 여행 다니는걸 원치 않습니다. 마치 여행을 가듯 불법을 공부해보십시오. 휴일동안 불법을 공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여행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휴가에 갔다 생긴 사망자의 수가 늘 많습니다. 그러니 여행갔다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라(미국)의 이런 유행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레크리에이션과 여행을 좋아합니다. 불교인은 휴가를 많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 불법 공부에 그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불경을 독송하거나, 신주를 외우거나 부처님께 절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Today I'm going to make a rule. I hope that from now on all of you will not take so many holidays and go on so many trips. Take the study of the Buddhadharma as your trip. Spend your holidays studying the Buddhadharma. Why do I say this? Because it's very dangerous to travel. Every holiday there are many fatalities, and if you travel, you might end up being one of them. We want to change the trends of this country. The people in this country are fond of recreation and travel. Buddhists should not take so many vacations. We can use this time to study the Buddhadharma. Even better, we can chant sutras, recite mantras, and bow to the Buddhas!

부처님께 절하면 무량공덕(無量功德) 즉 무한한 공덕이 있습니다.

There is infinite merit and virtue in bowing to the Buddhas.

부처님 앞에서 절하면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죄를 소제할 수 있습니다.

Bowing before the Buddhas can eradicate offenses

As numerous as the Ganges' sands.

佛前頂禮，罪滅河沙

부처님께 절하면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죄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원을 보시하는 것으로 무량한 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찰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해서 여러분의 공양을 받을 만한 복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공양을 받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공양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며칠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더 오래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주길 원하신다면 다른데 주셔도 됩니다. 복을 심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반드시 여기 이 사찰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사(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선화 상인의 사찰)에는 오직 복이 별로 없는 불쌍한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을 구하신다면 실망할겁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세요. 우리는 굶진 않을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보시라고 말하는데, 삼보에 올리는 시주금 또는 기부금을 본래 공양이라고 합니다)

If you bow to the Buddhas, you can cancel as many offense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anges River. It is also said, "Giving a single penny brings limitless blessings." However, I'm certainly not asking for money from you. You should understand that. You can make contributions to other monasteries and earn great blessings that way. We here are so wretched that we don't have the blessings to receive offerings. If we accept too many offerings, we might die. If no one makes offerings, maybe we can live a few days more. Despite the suffering, we still wish to live a little longer. We don't want to die yet. Therefore, if you wish to give money, you can give it to other places. There are plenty of places where you can plant blessings; you don't have to do it at this monastery, because Gold Mountain Monastery has only wretched people with few blessings. If you seek blessings here, you'll be disappointed. But don't worry, we won't starve!

유정이 깨달으면, 진애(번뇌)에서 튀어나온다. 육도만행이 시시각각 배양된다.

(유정각오有情覺悟/도출진애 跳出塵埃/육도만행六度萬行/시각배재時刻培栽)

Sentient beings when enlightened, leap out of the dust.

Their six perfections and ten thousand practices. At all times are nurtured.

보살은 유정들 중 깨달은 유정입니다. 깨달은 존재들 중 보살은 이해하는 자입니다. 이해하는 자 중에서도 보살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들 중에서, 보살은 진정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보살은 “도출진애” 즉 도약하여 진애(번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살이 이해가 없다면 진애(번뇌)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진애가 너무 두꺼워서 그밖으로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깨달았을 때, 진애(때)가 얇아져서 그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A Bodhisattva is a sentient being; among sentient beings, he's an enlightened one. Among the enlightened, he's one who understands. Among those who understand, he's a cultivator. Among cultivators, he's one who truly practices. A Bodhisattva "leaps out of the dust." If he did not have understanding, he wouldn't be able to transcend the defilement. The dust would be so thick that he wouldn't be able to leap out of it. When he becomes enlightened, the dust thins out and he can leap out of it.

“보살은 진애를 뛰어넘은 후 뭘 하나요? 잠도 자고 밥도 먹나요?”

“After a Bodhisattva leaps out of the dust, what does he do? Sleep and eat?”

그렇습니다. 보살도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옷도 입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을 위해, 음식, 옷, 거처를 위해 노예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애를 없애면, 이런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멈추게 되고, 대신 육바라밀을 수행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육바라밀六波羅蜜이란 보시(나눠주기), 지계(계율 지키기), 인욕(참기), 정진(열심히 갈고 닦기), 선정(삼매), 반야(지혜)입니다.

Yes, he still sleeps, eats, and wears clothes; but he no longer works like a slave to provide his body with food, clothing, and a place to live. When you get out of the dust, you cease to be concerned with these three problems, and instead you concentrate on cultivating the six perfections: giving, holding precepts, patience, vigor, concentration, and wisdom.

여러분들 중 몇몇은 “보시바라밀과 연관된게 뭘지 알겠네요. 나한테 보시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거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돈을 그냥 파쇄기로 잘라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을 너무 많이 원하면 안됩니다. 돈은 극히 더러운 물건이고, 돈과 너무 많이 관련되는 것이 바로 “진애”를 뜻합니다. 돈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극히 청정해질 것이고, “진애”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몇 사람은 돈을 만지지 않는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이 “진애”를 추월한 것입니다. 그래도 미래에 다시 돈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I know what the perfection of giving entails. It involves telling others to make offerings to me,” some of you are thinking. Wrong. It is learning to give to other people. As for money, it would be nice to shred it up. We shouldn't want so much of that filthy stuff. Money is an extremely defiling possession, and too much involvement with it is what is meant by "dust." If you don't want money, then you will be extremely pure and will be able to transcend the "dust." Some of you have now transcended the "dust" because you are holding the precept of not handling money. However, make sure you don't get contaminated by money again in

the future.

만행(일만가지 수행)을 하여, 시시각각 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수행하고, 내일은 하지 않을 것이야. 올해는 수행하고,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번 달에 수행하고, 다음 달은 쉬어야겠다. 현생에서 수행하지만, 다음 생에는 안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 수행하고, 다음 순간에 잠을 잔다면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늘 육바라밀의 수행과 만행을 양육해야 합니다. 세세생생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보살이 될 것입니다.

You should also cultivate the ten thousand practices and nurture them at all times. You cannot say, "I'll cultivate today, but not tomorrow. I'll cultivate this year, but not next year. I'll cultivate this month and take a rest next month. I'll cultivate this life, but not next life." To cultivate one moment and sleep the next moment won't work. At all times you should nurture your cultivation of the six perfections and ten thousand practices. Cultivate them in life after life. If you practice in this way, you will be a Bodhisattva.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at's not easy," you say.

보살이 되기가 쉽다고 생각했나요? 보살이 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쉬라바카(아라한)이나 벽지불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Did you think that being a Bodhisattva would be easy? Not only is it not easy to be a Bodhisattva, it's not easy to be a Shravaka or a Pratyekabuddha, either.

“그렇다면 쉽게 될 수 있는게 뭔가요?”

"Then what is it easy to be?"

귀신이 되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동물이 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것을 원한다면, 이런 종류의 중생이 되면 됩니다. 보살이 되길 원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라는 단어가 바로 보살행菩薩的行爲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It is easy to be a ghost, to go to the hells, or to become an animal. If you want things to be easy, you can be those beings. If you want to be a Bodhisattva, it won't be easy. You say it's difficult; the word "difficult" describes what Bodhisattvas do.

보살은 반드시 다른 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살은 다른 이가 견디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보살은 “그건 괜찮은데 ...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힘든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감히 할 수 없다면 그럼 보살이 아닙니다. 정진으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바로 마치 보살과 같은 것입니다. 난

해하거나 위대한 비밀은 없습니다. 다른 이가 할 수 없는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Bodhisattvas must be able to do what others cannot do; they must endure what others find difficult to endure. When people consider a job too difficult, they say, "That's all right; we'll handle it." They are not put off by difficult tasks. If you don't dare to do what is hard, you are not a Bodhisattva. Go forth with vigor! That's what a Bodhisattva is like; there is no other esoteric or wonderful secret. If you can do the things that other people cannot do, you are a Bodhisattva.

연각법계 緣覺法界

The Dharma Realm of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계송 Verse:

연각성현 緣覺聖賢 고봉독면 孤峰獨眠

춘화추사 春花秋謝 십이연환 十二連環

인연으로 깨달은 성현은 높은 산에서 홀로 잠들었다.

봄 꽃이 가을 동안 12개의 연환에서 말라죽는다.

The holy sages enlightened to conditions, Doze high on mountain peaks alone.

Springtime's flowers wither in the fall, In a cycle of twelve interconnecting links.

주석 Commentary: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할까요? 이들 연각(벽지불)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각은 다른 이들 근처에 있는걸 싫어하는 은둔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고 있으니, 연각처럼 행동하면 안됩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실 때, 이들을 연각(緣覺)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안계실 때,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독각(獨覺)이라고 부릅니다.

Why am I asking you all these questions?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Pratyekabuddhas) don't like questions. They are recluses who don't like to be around other people. Today we are looking into the question of everyone being together, so you should

not act like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When there is a Buddha in the world, they are called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When there is no Buddha in the world, they are called Solitarily Enlightened Ones, because they are able to become enlightened by themselves.

이들이 하길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 꼭대기에서 홀로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연각성현 고봉독면 춘화추사 십이연환** 緣覺聖賢 孤峰獨眠 春花秋謝 十二連環. 연각 (연으로 깨달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인연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십이연기 즉 12가지의 인과를 수행하지만, 우리는 이 열두가지 인과로 인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What do they like to do? They like to sleep in solitude on the mountain peaks. The holy sages enlightened to conditions. / Doze high on mountain peaks alone. / Springtime's flowers wither in the fall. / In a cycle of twelve interconnecting links. Speaking of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we should also become enlightened to causes and conditions. They cultivate the twelve causes and conditions. We, however, are cultivated by the twelve causes and conditions.

십이연기 중 첫째가 “무명(無明)”입니다. 이들은 무명을 관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상하다! 어떻게 무명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무명(無明)이 행(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 first of the twelve causes and conditions is ignorance. They contemplate ignorance. "Where does it come from? Strange! How can there be ignorance?" Then they see that ignorance leads to activity.

‘행(行)’이 발현함으로써, 식(識)이 나타납니다. ‘식(識)’은 분별과 연관됩니다. 무명이 연에 따르기도 하고, 연(緣)에 따르지 않기도 하는 반면 행(行)은 유위법(有爲法)입니다; 이는 두 가지 중간에 있습니다.

With the manifestation of activity, consciousness appears. Consciousness involves discrimination. Activity is a conditioned dharma while ignorance is neither conditioned nor unconditioned; it is between the two.

왜 분별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유위법(有爲法)에 인해서입니다. 분별심은 유위법(有爲法)에 의한 결과입니다. 분별심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名)과 색(色)이 곤란을 일으키죠. “명(이름)”이 이름의 문제를 가져오고, ‘색(형태)’이 형태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름과 형태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추가되었어요. 내가 입을 열기 전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Why are discriminations made? Because of conditioned dharmas. The discriminating mind is a result of conditioned dharmas. With a discriminating mind, the trouble starts. Name and form are the trouble. Name brings the trouble of name, and "form" brings the trouble of form. If I didn't talk about them, there wouldn't be any problems. Just mentioning them is asking for trouble, because you're bound to say, "How are name and form troublesome? I don't understand." Now you have the added trouble of "not understanding." Before I said anything, you didn't have that problem. Once I began talking, the problem of your not understanding arose and with it came the desire to know.

이 지식을 위한 탐구는 육촉(六觸)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육촉(六觸)이 중생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도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This quest for knowledge results in the use of the six sense faculties. See? The six sense faculties come into being because of the wish to understand. Have you ever heard such an explanation? No one has explained it this way before.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결심하면 그때 안(眼, 눈), 이(耳, 귀), 비(鼻, 혀), 설(舌, 혀), 신(身, 몸), 의(意, 마음 또는 의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고자 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덜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채 이들(육처)을 통해 이해를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When you decide you want to know, the eyes, ears, nose, tongue, body, and mind appear. You think you can gain understanding through them without realizing that the more you want to understand, the more confused you become, and the more confused you are, the less you understand.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하니, 여러분은 촉(觸)을 구하게 됩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무작위 접촉을 시도합니다. 마치 파리가 벽에 미친 듯이 막 부딪히듯이 말입니다. 왜 벽에 막 부딪힐까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Since you do not understand, you seek contact. You go around making contact at random: east, west, south, north, above, below; like a fly madly bouncing off the walls. Why does it bounce off the walls? Because it wants to understand.

촉(觸)이라는 것은 벽에 부딪혀 튕기면서 사방으로 사물들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어디에나 다 가보지만, 이런 필사적인 시도의 결과는 많은 상처뿐입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결심이 굳어지고, 이런 접촉들이 생기면, 수(受) 즉 느낌이 있습니다. “아, 아프다!” 또는 “아~ 매우 편안하다. 당장 여기저기 부딪치지 않으니, 기분이 매우 좋다.” 그러나 또다시 여러분이 어떤 것에 부딪히게 되면, 기분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멋지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하면 매우 화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수(受) 즉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이걸 밖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Contact is just bumping up against things, going everywhere bouncing off the walls. You go everywhere hoping to understand, but all that results from this desperate attempt is a lot of bruises. After the determination to understand sets in and encounters occur, there is feeling. "Ow, that hurts!" Or, "Ah, I'm so comfortable. Right now I'm not bumping into things, and I feel really good." But when you bump against something, you don't feel good at all. You feel happy if no one is telling you that you're not nice. But you get upset when you hear someone criticize you. This is where feeling lies; it cannot be found outside.

느낌이 있으면 그때 탐애의 집착(貪愛和執著)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즐거운 상태에 대한 애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불쾌한 환경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행복과 불행은 애착愛과 혐오惡에서 옵니다. 그래서 매일 문제가 커집니다.

Once there is feeling, craving and attachment arise. You give rise to craving and attachment for pleasant situations, but you feel aversion for unpleasant environments. Happiness and unhappiness come from craving and aversion, and so every day the trouble grows.

인연으로 깨달은 성현은 높은 산에서 홀로 잠들었다. 봄꽃이 가을동안 12개의 연환에서 말라죽는다. 봄이 오면 무궁무진한 것들이 자라고 번영합니다. 그래서 벽지불 성자는 모든게 생사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관해서 깨닫습니다. 이들은 “봄에 수백송이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관하고, 가을에 낙엽이 말라 떨어지는 것을 관합니다(봄니다).” 이들은 12개의 인연을 관합니다.

The holy sages enlightened to conditions. Doze high on mountain peaks alone. Springtime's flowers wither in the fall. In a cycle of twelve interconnecting links. The myriad things grow and prosper in the springtime, so the Pratyekabuddha sages contemplate and realize that everything undergoes the natural process of birth and death. They “contemplate the hundreds of flowers blossoming in the springtime, and watch the dry leaves falling in the autumn.” They contemplate the twelve causes and conditions.

이제 우리는 애(愛)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불안정하게 느끼는 건 갈애 때문입니다. 갈애가 있

으면 혐오도 따릅니다. 여러분은 갈애하는 것을 움켜잡습니다. 움켜잡는다(取, 취)는 것은 무슨 뜻 일까요? 그건 어떤걸 꼭 쥐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갈애가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얻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取)는 유(有)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 이런걸 가지면, 그땐 생(生) 그리고 노사(老死)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각이 수행하는 십이연기[十二緣起]법 입니다.

Now we come to craving愛. The reason people feel unsettled is because of craving渴愛. Once there is craving, there is also aversion. You grasp at those things that you crave. What is meant by grasping? It means wanting to get hold of something. Because you have craving, you then want to obtain those objects in order to fulfill your desires. Thus grasping leads to becoming. Once you have these things for your own, there is further birth, which leads to old age and death. These are the twelve causes and conditions cultivated by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성문법계 聲聞法界

The Dharma Realm of Hearers

계송 Verse:

성문중승 聲聞衆僧 불론여남 不論女男

사체관행 四諦觀行 은실시권 隱實示權

쉬라바카 제자들아, 남녀를 불론하고,

사성제를 관행하고, 사실을 숨기고 방편을 보여라.

The Shravaka disciples, Both men and women, Contemplate and practice the Four Noble Truths, Concealing the real and displaying the expedient.

주석 Commentary:

성문계에는 예류과, 일래과, 불환과, 아라한과의 성문 즉 “쉬라바카”가 있습니다. 이 법계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re are Hearers (Shravakas) of the first fruition, the second fruition, the third fruition, and the fourth fruition. This Dharma Realm is further divided into:

a. 예류향(豫流向): 아직 과위를 얻지 못하였으나 예류과를 향해 수행해 가는 자들
those approaching the first fruition, who have not yet realized the fruition;

b. 예류과(豫流果): 예류(첫번째 과위)에 도달한 상태
those who have realized first fruition;

c. 일래향(一來向): 일래과(두번째 과위)를 향해 수행해 가는 단계
those approaching the second fruition;

d. 일래과(一來果): 일래(두번째 과위)에 도달한 상태
those who have realized the second fruition;

e. 불환향(不還向): 불환과(세번째 과위)를 향해 수행해 가는 단계
those approaching the third fruition;

f. 불환과(不還果): 불환(세번째 과위)에 도달한 상태
those who have realized the third fruition;

g. 아라한향(阿羅漢向): 아라한과(네번째 과위)를 향해 수행해 가는 단계
those approaching the fourth fruition; and

h. 아라한과(阿羅漢果): 아라한(네번째 과위)에 도달한 상태
those who have realized the fourth fruition.

성문은 아라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라한은 날아다닐 수 있고, 스스로 변신할 수 있으며,神通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가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생각없이 과위를 증득했다고 주장해선 안됩니다. 그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문에 도달한 성자는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땅 위에 걷는 것으로 보여도, 사실은 공기 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바닥이나 흙에 닿지 않습니다. 진흙을 걸어가도, 발이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화엄종의 첫 조사였던 두순杜順 법사가 바로 진흙 위를 걸어도 신발에 흙이 묻지 않았던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이것은 성문을 얻은 성자의 표시입니다. 아무나 성문을 얻었다고 막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영어에 성문과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수다원은 1st stage arhat 즉 첫단계 아라한, 사다함은 2nd stage arhat 즉 2단계 아라한, 아나함은 3rd stage arhat 즉 3단계 아라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과위인 아라한은 4th stage arhat이라고 지칭합니다)

Hearers are also called Arhats. Arhats can fly and transform themselves, and they possess supernatural powers. One should not casually claim that he has attained the fruition, saying,

"I'm an Arhat." That is not allowed. When a sage who has attained the fruition walks, his feet do not touch the ground. Although he appears to be walking on the road, he is actually traveling in the air. His feet do not touch the ground or the dirt. Even if he walks across mud, his shoes remain clean. Dharma Master Du Shun [the first patriarch of the Huayan School], for example, was one whose shoes weren't soiled when he walked over mud. This is the sign of a sage who has attained the fruition. One cannot casually claim to have attained the fruition.

예류과(또는 수다원)는 견혹見惑을 이미 제거했습니다. 일래과(또는 사다함)는 사혹思惑을 제거했습니다. 불환과(또는 아나함)은 망상을 마치 먼지와 모래처럼 모두 제거했습니다. 아라한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무명無明을 제거했습니다. 무명을 완전히 파괴한 자만이 성불합니다. 등각等覺의 경계에 있는 보살도 여전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무명(生相無明) 조금 있는데, 이로 인해 아직 불도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아라한은 어떤 법을 수행하는가요? 모두다 아라한이 수행하는 법을 압니다. 모두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그건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멈춤, 괴로움이 멈추는 길)입니다.

Hearers of the first fruition have eliminated view delusions. Those of the second fruition eliminate thought delusions. At the level of the third fruition, they eliminate delusions in number like dust and sand. The Hearer of the fourth fruition has partially, though not completely, eliminated ignorance無明. Only one who has completely destroyed ignorance realizes Buddhahood佛道, for even a Bodhisattva at the stage of equal enlightenment still has a small amount of the ignorance of arising phenomena which keeps him from realizing Buddhahood. What Dharmas do sages of the fourth fruition cultivate? Everyone knows the Dharmas they cultivate; we've all heard them before. They are: suffering, the cause of suffering, the cessation of suffering, and the Way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맨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첫 다섯 비구 스님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러 녹야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비구 아야교진여, 비구 아쉬바짓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다섯 명은 부처님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수행하려고 부처님을 따라왔지만 그중 몇은 고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히말라야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하루에 참깨 한 알과 밀 한톨만 드셔서 나무가지처럼 뼈쩍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세 명은 참지 못하고 배고파서 도망갔고, 2명만 남았습니다.

In the beginning, Shakyamuni Buddha went to the Deer Park to teach those people who were to become the first five Bhikshus. This included the Venerable Ajnatakaundinya and

the Venerable Ashvajit. These five people were, in fact, relatives of the Buddha. They had followed the Buddha to practice, but some of them couldn't endure the hardship. When Shakyamuni Buddha was cultivating in the Himalayas, he became as thin as a stick, because he ate only one sesame seed and one grain of wheat each day. Three of his followers found this unbearable and fled in hunger, and only two remained.

음력으로 12번째 달 8일에 천상의 아가씨가 부처님께 우유를 공양으로 올렸는데, 부처님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남아 있던 두명의 수행자도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고행을 참지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수행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금욕수행을 해야하는데, 우유를 마시는 것을 보니, 그(석가모니 부처님)는 고행을 견딜 수 없는거야”. 그렇게 남은 2명도 떠나버렸습니다. 이들 다섯명은 모두 녹야원으로 갔습니다.

Later, on the eighth day of the twelfth lunar month, a heavenly maiden offered some milk to Shakyamuni Buddha, and he accepted it. At that point, the other two followers left as well, not because they couldn't stand the hardship, but because they felt that the Buddha didn't know how to practice. They said, "You're supposed to be cultivating ascetic practices, and yet you drank milk. That shows you aren't able to cultivate and endure hardship." Therefore, they left as well. All five of them went to the Deer Park.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되신 후 가장 먼저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오직 몇명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을 감추고,方便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함경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누굴 가르칠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내 수행을 돕는 다섯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스스로 깨달은 자 (붓다)가 되면 나를 자르고, 죽이고, 나쁘게 대한 이들부터 가르친다고 서원을 세웠으니, 이들부터 가르쳐야겠다.” 부처님을 최악으로 대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금강경을 읽었다면, 여러분도 칼리왕을 기억할 겁니다. 과거에 인因을 심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내심이 많은 불멸의 존재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칼리왕은 그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fter Shakyamuni became a Buddha, he first spoke the Avatamsaka Sutra, which very few beings were able to understand. He then concealed the true and offered the expedient teaching," and he spoke the Agama Sutras. "Whom should I teach?" the Buddha wondered. Then he recalled, "Previously I had five fellow cultivators who supported my practice. I should teach them first, because in the past I vowed that when I became a Buddha, I would first teach those who have slandered me, killed me, or treated me badly." Who had treated the Buddha the worst? If you've read the Vajra Sutra, you'll know about King Kali. At the

level of planting causes, when Shakyamuni Buddha was cultivating as a patient immortal, King Kali had chopped off the limbs of his body. Why?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 그의 몸은 두꺼운 먼지와 때로 덮여 있었고, 산 아래로 한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속에서 금욕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칼리왕이 사슴 사냥을 했는데, 후궁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후궁들은 왕과 함께 산을 갔지만, 왕과 함께 사냥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여기저기 거닐고 있는데, 이상한 자를 발견했습니다. 후궁들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상한 생명체는 눈썹과 머리카락이 길었고, 얼굴은 한번도 안씻어서 때가 매우 두껍게 붙어있었습니다. 옷위에 쌓인 먼지와 때가 적어도 1인치는 넘도록 두꺼웠습니다. 후궁들은 이걸 보고, 무엇인지 몰라서 “괴물이다! 여기서 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In that previous life, Shakyamuni Buddha was a skilled cultivator. His body was covered with a thick layer of dust and dirt, and he never went down the mountain. He remained there cultivating ascetic practices. One day King Kali took his concubines his wives—along on a deer hunt. The women accompanied him into the mountains, but had no interest in hunting with the King. They wanted to have fun on their own. While strolling around in the mountains, they came upon a strange creature…they weren't quite sure what it was. Its eyebrows were three inches long and its hair was two feet long. Its face seemed to have never been washed, for the dirt caked on it was extremely thick. The dirt on its clothing was at least an inch thick. When these women saw it, they couldn't figure out what it was. They said, "It's a monster! Let's get out of here!"

그때 수행자는 “가지 마세요. 난 괴물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Then the cultivator said, "You don't have to leave; I'm not a monster."

여자들이 “와 이게 말을 한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중 좀 더 용감한 후궁이 물었습니다.

"It can speak!" they gasped. One of the braver ones asked him,

“여기서 뭘 하고 있는거죠?”

"What are you doing here?"

그가 대답하기를 “수행修行하고 있지요”

He replied, "I'm cultivating."

여자가 묻기를 “수행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요?”

She asked, "What do you mean by 'cultivating'?"

그가 말하길 “난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후궁들에게 법法을 가르쳤습니다.

He said, "I'm cultivating in order to become a Buddha." Then he taught them the Dharma.

후궁들이 좀더 친근해져서 걱정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데, 뭘 먹지요?”

The women grew friendlier and expressed their concern, "You endure so much difficulty here. What do you eat?"

수행자가 대답하길 “나무뿌리, 잎사귀 등 있는건 뭐든 먹지요. 사람들에게 먹을걸 구걸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땐 이미 후궁들의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그중 한 후궁이 그의 눈썹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떤 후궁은 손을 만지고, 또 하나는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후궁들은 마치 수행자가 뭔가 매우 귀한 것인냥 가까이 하고 싶어했습니다.

He answered, "I eat whatever there is—roots and leaves. I don't go out asking for food from people." By that time the women's fears vanished. One of them reached out to touch his eyebrows; another touched his hands, and yet a third patted his face. They viewed the cultivator as something precious and tried to get closer to him.

그러는 동안 칼리왕은 사냥을 마치고 후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후궁들이 모두 모여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후궁들쪽으로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왕이 가까이 가서보니 후궁들이 매우 이상한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는 그 남자의 손을 만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발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후궁들이 매우 상냥하게 행동하는걸 보고 왕은 갑자기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수행자는 후궁들에게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Meanwhile, King Kali had finished hunting and was looking for his concubines. He found them all gathered around something and tried to see what they were up to. He walked his way slowly toward them, not making a sound, and when he was close enough he saw them talking with a very strange man. What is more, one was touching his hands and another was patting his feet! Seeing them acting so friendly, the King immediately grew jealous. The cultivator was talking to his women about cultivation.

왕은 분노해서 “넌 내 여자들과 놀아날 자격이 없다. 네가 하고 있다는 그 수행이 대체 무엇이냐?”

In a rage, the King bellowed, "You have no business cheating my women! What are you cultivating?"

수행자가 말하기를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The cultivator replied, "I'm cultivating patience."

“네가 말하는 인욕라는 것이 무엇이냐?”

"And what do you mean by 'patience'?"

“나를 나무라거나 때리는 자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I will not become angry at anyone who scolds or beats me."

칼리왕이 말하기를 “네가 내 여자를 데리고 널 믿도록 속였지만, 난 절대 널 믿지 않는다. 네가 진짜 참을 수 있다고? 그게 사실인가?”

King Kali said, "You may have cheated my women into believing you, but I'll never believe you. You say you can be patient? Is that true?"

늙은 수행자가 “물론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The old cultivator said, "Of course."

“좋아 그럼 난 너를 시험할 것이다!” 왕은 칼을 꺼내 이 늙은 수행자의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방금 네 손을 잘랐다. 날 미워하는가?”

"Fine, I'm going to give you a test!" The King then drew his sword and chopped off the old cultivator's hand. He said, "I've just chopped off your hand. Do you hate me?"

수행자가 말하기를 “아니오”

The cultivator said, "No."

“네가 날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넌 진짜로 수행의 힘이 조금 있구나. 그러나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마음속으로 날 혐오하면서 말로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난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네가 날 속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느냐?” 칼리왕은 이어서 “좋다. 네가 인내심이 있고, 날 미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니, 네 다른 손도 마저 잘라야겠다.”

You don't hate me? Then you really have some skill. But you must be lying. You just say you don't hate me, even though in your mind you do. You're lying! I'm a very smart person. You think you can fool me?" King Kali continued, "All right, since you claim you are patient and don't hate me, I'm going to chop off your other hand."

왕은 수행자의 다른 손도 마저 잘라버린 후 물어봤습니다. “이제 날 미워하는가?”

After chopping off the cultivator's other hand, the King asked, "Now do you hate me?"

늙은 수행자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The old cultivator said, "No."

왕은 수행자의 발도 잘라버렸습니다. 수행자의 사지를 잘라버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날 미워하는가?”

The King then chopped off the cultivator's feet. Having hacked off the cultivator's four limbs, he asked, "Do you hate me?"

“아니요”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불하면, 난 당신부터 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내 사지가 복구되지 않을 것이요. 내 사지를 완전히 다 잘라냈는데도, 내가 당신을 혐오하지 않으면 내 손발이 다 복구될 것입니다. 만약 내 사지가 다시 복구된다면, 그것이 내가 혐오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혐오를 느낀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요. 그결과 늙은 수행자는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於是這位老修行的四肢又恢復如故

"No," said the cultivator, "not only do I not hate you, but when I accomplish Buddhahood成佛, I will save you first. How can I convince you that I don't hate you? If I hate you, my four limbs will not be restored, and if I don't hate you, my hands and feet will be restored, even though you have completely severed them from my body. If they are restored, that will prove that I don't feel any hatred. If I feel any hatred, that will not occur." Whereupon the old cultivator became whole again.

호법신들은 칼리왕이 수행자의 손발을 아주 잔인하게 잘라버린걸 목격하고,神通력을 사용해서 우박을 쏟아부어 왕을 공격했습니다. 칼리왕은 수행자의 위대한神通력을 보고서 자신의 죄가 심각함을 알아차렸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Having witnessed King Kali hack off the cultivator's hands and feet in such a cruel manner, the Dharma-protecting spirits manifested their great supernatural power and pelted the King with a shower of hailstones. Realizing the severity of his offense and seeing the cultivator's great spiritual powers, King Kali knelt before the cultivator seeking forgiveness.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성불하지 못하면 아무런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제일 먼저 그대부터 구할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먼저 전생에 칼리왕이었던 아야교진여를 가르치기 위해서 녹야원으로 갔습니다. 전생의 서원대로 부처님은 자신을 최악으로 대했던 자부터 구하길 원했습니다.

The cultivator said, "If I don't realize Buddhahood, there is nothing to be said. But if one day I do, I will save you first." That is why the Buddha first went to the Deer Park to teach Ajnatakaundinya, who had been King Kali in a former life. Because of his past vow, the Buddha first wanted to save the person who had treated him the worst.

이 이야기를 듣고난 후 부처가 된 후 우리를 최악으로 대했던 자부터 가장 먼저 구할 것이라고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넌 나한테 못되게 굴었으니, 내가 부처가 되면 너부터 지옥에 보낼 것이다”라는 서원을 세우면 안됩니다.

After hearing this story, we should all vow that after becoming Buddhas, we will first save those who treated us the worst. We shouldn't think, "You've been so mean to me. I'm going to send you to the hells after I become a Buddha." Don't make that kind of vow.

부처님이 녹야원에 갔을 때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사성제의 법륜이 세번 돌아가는 것(삼전법륜, 三轉法輪)에 대하여 설하셨습니다.

When the Buddha went to the Deer Park, he spoke the three turnings of the Dharma Wheel of the Four Noble Truths for the five Bhikshus. First he said:

이것이 괴로움(苦)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This is suffering; it is oppressive.

이것이 집(集)이며, 고의 원인이다. 이것이 감성을 부른다 招感性.

This is the cause of suffering; it beckons.

이는 도(道)이다. 이는 수행될 수 있다.

This is the Way; it can be cultivated.

이는 괴로움의 끝(滅)이다. 이를 깨달을 수 있다.

This is the cessation of suffering; it can be realized.

두 번째에서 부처님이 말하길,

The second time he said,

이는 고(苦)이다: 나는 이를 완전히 알았다.

This is suffering; I have completely known it.

이는 고의 원인이다. 나는 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This is the cause of suffering; I have completely eliminated it.

이는 도(道)이다. 나는 이를 완전히 수행했다.

This is the Way; I have completely cultivated it.

이는 고의 멸(滅)이다. 나는 이를 완전히 깨달았다.

This is the cessation of suffering; I have completely realized it.

세 번째 돌릴 때 그가 말하길,

During the third turning he said,

이는 고(苦)이다, 그대도 알아야 한다.

This is suffering; you should know it.

이는 고의 인(因, 원인)이다. 그대는 이를 없애야 한다.

This is the cause of suffering; you should eliminate it.

이는 도(道)이다. 그대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This is the Way; you should cultivate it.

이는 고의 멸(滅)이다. 이를 깨달아야 한다.

This is the cessation of suffering; you should realize it.

부처님이 이 사성제의 삼전법륜(三轉法輪)을 설하신 후 아야교진여에게 “그대는 객진客塵에 의해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얻지 못했네”라고 말하셨습니다.

After the Buddha spoke the three turnings of Four Noble Truths, he said to Ajnatakaundinya, "You are troubled by guest-dust [transient defilements 客塵] and have not obtained liberation(解脫)."

아야교진여가 “객진(客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 깨달았고, 객진을 보았습니다. “객은 주인이 아니고, 진(먼지)은 깨끗하지 않다. 내 자성은 주인이고, 이는 청정(淸淨)하다.”

When Ajnatakaundinya heard the words "guest-dust," he became enlightened and realized the transience of defiling objects. "The guest is not the host, and the dust is unclean. My self-nature is the host, and it is clean and pure."

아야교진여는 “해본제 解本際”로 불립니다. 그는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여, “해공제일 解空第一”이 되었습니다.

Ajnatakaundinya is called "one who understands the original limit解本際." He understood the fundamental truth and became the "foremost exponent of emptiness解空第一."

사성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쉬라바카(성문) 제자들, 남녀를 불문하고. 즉 남자 여자 둘 다 성문계에 도달할 수 있고,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마라지바 법사의 어머니는 아나함이 되었습니다.

The Four Noble Truths are infinite and inexhaustible. The Shravaka disciples, / Both men and women. Both women and men can realize the fruition and become Hearers, or Arhats. Dharma Master Kumarajiva's mother, for instance, became a third-stage Arhat.

성문은 사성제(四聖諦)를 관행(觀行, 관하고 행하다)합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입니다. 이는 고통을 자각하는 것,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것, 고통을 멸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도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사성제의 법문을 수행합니다.

Hearers contemplate and practice the Four Noble Truths. They cultivate the Four Noble Truths: suffering, the cause of suffering, the cessation of suffering, and the Way. This involves being aware of suffering, eliminating the cause of suffering, aiming for the cessation of suffering, and cultivating the Way. They cultivate the Dharma-door of the Four Noble Truths.

사실을 숨기고, 방편을 보여라 隱實示權. 여러분은 이들을 성문으로 보지만, 실제로 방편적으로는 성문으로 보이지만 권교(權敎)의 대보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실을 숨긴다 隱實”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진짜 공덕은 감춥니다. “방편을 드러낸다 示權”는 것은 능숙한 방법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문들이 이 세상에 돌아온 대보살일 수 있습니다. 모두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은 분명히 대승의 보살이며, 더 큰쪽으로 진전하라고 재촉하기 위해서 테라바다(소승)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사실을 숨기고 방편을 드러낸다 隱實示權”라고 부릅니다.

Concealing the real and displaying the expedient. You see them as Hearers, but in reality they may be great Bodhisattvas of the provisional teaching who appear expediently as such. This is called "concealing the real." They conceal their real merit and virtue. "Displaying the expedient" means they demonstrate skillful means. Hearers may be great Bodhisattvas who have come back to the world. Not all of them are, but some of them are definitely Great Vehicle Bodhisattvas who appear among those of the Theravada to urge them to progress toward the great. This is called "concealing the real and displaying the expedient."

천법계 天法界

The Dharma Realm of Gods

게송 Verse:

육욕범천 六欲梵天 오계십선 五戒十善

종유루인 種有漏因 룬회난단 輪回難斷

육욕천과 범천의 중생들은 오계와 십선을 수행하여,
유루를 갖고 씨앗을 심으니, 이들이 윤회를 끊기가 어렵다.

Beings of the Six Desire and the Brahma heavens, Practice the five precepts and the ten good deeds. Planting seeds with outflows, They cannot terminate their transmigration.

주석 Commentary:

육욕천과 범천의 중생들 六欲梵天. 첫째 육욕천 즉 욕계에 천상이 여섯개가 있습니다. 욕계, 색계와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 세상에는 모두 천상이 존재합니다.

Beings of the Six Desire and the Brahma Heavens. First of all, there are the Six Desire Heavens, which are the Heavens of the Desire Realm. There are heavens in the Desire Realm, the Form Realm, and the Formless Realm—in all of the Three Realms.

우리의 세계는 욕계의 여섯 천상(육욕천) 중 첫 번째 천상인 사천왕의 천상 아래 위치합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 천상은 사천왕이 다스립니다. 이는 수미산으로 가는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데, 그건 수미산의 반은 인간계에 있고, 나머지 반은 사천왕의 천상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미산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 천상 지역을 우리 세계의 사대주(四大洲, 네 개의 대륙)라 부르며, 사천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동쪽이 불파제 (弗婆提, Purvavideha), 남쪽에 있는 것이 염부제 (閻浮提, Jambudvipa), 서쪽이 구야니(瞿耶尼, Avaragodaniya), 북쪽이 울단월 (鬱單越, Uttarakuru)입니다. 이 천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Our world is located under the first of the six heavens of the Desire Realm—the Heaven of the Four Heavenly Kings. This heaven, which is directly above us, is governed by the four Heavenly Kings. It is located halfway up Mount Sumeru, which means that half of Mount Sumeru is within the human realm while the other half is above the Heaven of the Four Heavenly Kings. The parts of this heaven located on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sides

of Mount Sumeru are governed by the four Heavenly Kings, as are the four continents of our world: Purvavideha to the east, Jambudvipa to the south, Aparagodaniya to the west, and Uttarakuru to the north. If we were to go into detail, we would never finish our discussion of this heaven.

사천왕의 천상에 있는 천인은 수명이 500년이지만, 이건 우리 세상의 500년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천상의 하루 밤낮이 지구 상의 50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왕의 천상에서 500년이 지구에서 몇년과 같을까요? 그곳의 천인은 500년을 살고, 그들의 하루가 인간의 50년과 같습니다. 인간의 몇년이 이들의 365일과 같을까요?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아신다면 한번 계산 해보세요.

The beings in the Heaven of the Four Heavenly Kings have a life span of 500 years, but that's not the same as 500 years in our world. One day and night in that heaven is equal to 50 years on earth. Figure it out: How many years on earth is 500 years in the Heaven of the Four Heavenly Kings? The beings in that heaven live for 500 years. One of their days is 50 human years. How many human years is 365 of their days? If you know math, you can figure it out.

두 번째 옥천(慾天)은 도리천 (忉利天, Trayastrimsha Heaven)입니다. 트라야스트림샤(트라야스트리)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그러면 “모르는 천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천상’이 그냥 트라야스트림샤 즉 산스크리트어로 33을 의미합니다. 능엄신주에 인토라예 (인드라) 라고 알려져 있는 샤크라는 이 천상의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신이며, 중국에서는 옥황상제 (玉皇上帝)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경(西京)에서는 그를 상제라고 부르며 “상제를 숭배하려면 씻고 청정함을 지켜야 한다齋戒沐浴, 以事上帝”라고 말합니다.

The second heaven in the Desire Realm is the Trayastrimsha Heaven. Trayastrimsha (Trayastri) is a Sanskrit word.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Then let's call it the "Don't Know Heaven." The Don't Know Heaven is just the Trayastrimsha, a Sanskrit word that means thirty-three." Shakra, known as yin tuo la ye (Indra) in the Shurangama Mantra, resides in the center of these heavens. He is the “God” revered in Christianity, and in China he is known as the Jade Emperor. The Book of History (Shu-jing) refers to him as the Supreme Lord and says, "Bathe and observe purity in order to worship the Supreme Lord."

고대 중국에선 아무도 부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건 오직 옥황상제뿐이었습니다. 상왕조 시대(商朝)의 당 황제는 옥황상제께 검은 황소를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나, 류履는 작은 아이이지만 이 검은 황소를 받쳐 황황후제(皇皇后帝, 옥황상제를 높여서 부른 말)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건 백성의 죄가 아니요, 만약 백성이 죄를 지었다

면 그 또한 제 죄입니다.”

In ancient China no one knew about the Buddha; they knew only about the Supreme Lord. In the Shang Dynasty, Emperor Tang used a black bull as an offering to the Supreme Lord and said, "I, Lü, but a small child, presume to use this black bull in venturing to make known to the Supremely Exalted Ruling Lord that if I have offenses, they are not the people's, and if the people have offenses, the offenses rest with me."

탕황제의 이름은 ‘류’이었고, 황제는 자기 자신을 작은 어린아이로 낮춰부름으로써 옥황상제께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는 옥황상제께 아주 진심어린 마음으로 검은 황소를 공양으로 올리면서 만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릴 필요가 없고, 즉 제국의 일반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황제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mperor Tang's name was Lü, and he referred to himself as a small child out of respect for the Supreme Lord. He very sincerely offered a black bull and told the Supreme Lord that if he made errors, the citizens should not be blamed, and that if the common folk of his country committed offenses, the responsibility should rest with the Emperor for not having taught them correctly.

옛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요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명백히 알면서도 “쳐다보지 마세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왜 내 탓을 합니까?”라고 말하고, “신은 불공평해. 왜 신은 다른 이에겐 부활을 주고, 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지? 왜 신은 어떤 사람에게겐 명예를 주면서, 난 이렇게 불쌍하게 둔걸까?”라고 불평합니다. 천상을 탓하고 인류를 저주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허물만 봅니다. 옛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The ancients blamed themselves in that way, unlike people of today who clearly know that they are in the wrong but say, "Don't look at me! It's his fault! How can you blame me?" and complain, "God is unjust. Why does he confer wealth on others and make me so poor? Why does he bestow honor on some and leave me so wretched?" They blame heaven and curse mankind, looking for faults in others instead of admitting their own wrongs. The ancients acknowledged their own mistakes.

도리천에서 샤크라(옥황상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각8개의 천상의 중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총33개의 천상(三十三天)이 있습니다.

In the Trayastrimsha Heaven, Shakra resides in the middle, with eight heavens surrounding him to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making thirty-three in all.

욕계의 제3천(세 번째 천상)은 야마천(夜摩天) 또는 수야마천(須夜摩天)입니다. 야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시간”을 뜻합니다. 이 천상에서 천신은 매우 행복해서 밤낮으로 안락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난 너무 행복해”라고 노래합니다. 이들은 밤낮의 여섯 주기 晝夜六時에 걸쳐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이름은 “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모든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The third of the Desire Heavens is the Yama [Suyama] Heaven. Yama is a Sanskrit word which means "time period." In this heaven, the gods are so happy that they sing songs about their bliss day and night. They sing, "How happy I am! I'm so happy!" They are joyful throughout the six periods of the day and night. Hence, the name of this heaven is translated as "time period." Every time period is filled with happiness.

욕계의 제4천은 도솔천 즉 투시타 천상으로 “행복과 만족”으로 설명합니다. 그곳 존재들은 늘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항상 행복합니다. 이 천상은 “만족의 천상”으로도 불리는데, 그건 그곳 천신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근심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번뇌나 걱정도 없습니다.

The fourth of the Desire Heavens is the Tushita Heaven, which translates as "happiness and contentment." The beings there are always happy and satisfied. Those who know contentment are always happy. That heaven is also called the "Heaven of Contentment," because the beings there never have a worry or care from morning to night. They don't have any afflictions or worries.

욕계의 제5천은 낙변화천(樂變化天) 즉 니르말라라띠입니다 (화락천이라고도 합니다). 이곳 천신들은 변화를 통해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행복과 만족의 도솔천에서는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화락천에서는 천신들이 변화를 통해 행복을 가져옵니다.

The fifth of the Desire Heavens is the Heaven of the Transformation of Bliss (Nirmalarati). The beings in this heaven can derive happiness from transformations. In the previous heaven of "happiness and contentment," the beings are happy and conten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are transformations; they are content even in unhappy situations. In this heaven, the beings bring about happiness through transformations.

욕계의 제6천은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즉 다른 이의 안락을 변화시키는 천상으로 산스크리트어로 바라니르미따바르틴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천신은 스스로 어떤 안락도 없지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천인으로부터 안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마구니와 그 부하들이 함께 이

천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다른 천상에 있는 존재들로부터 행복을 가져올까요? 그건 이들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일반적인 도둑이 보통 타화자재천에서 떨어진 천신입니다. 천상에서 떨어져서 타인으로부터 훔치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he sixth of the Desire Heavens is the Heaven of the Transformation of Others' Bliss (Paranirmita-vavartin). The beings of this heaven haven't any bliss of their own, but they can take it from beings in other heavens for their own enjoyment. Many demons live in this heaven along with their retinues. Why do they take the happiness of beings in other heavens? Because they are unreasonable. Common thieves in the world of men are generally gods fallen from the Heaven of the Transformation of Others' Bliss. Having fallen, they still have the habit of stealing money from others.

범천(梵天)에 대범천(大梵天) 즉 마하브라마 천상, 범중천(梵衆天, Brahmakayika)과 범보천(梵輔天, Brahmapurohita)이 포함됩니다. 육욕천과 범천의 신은 오계(五戒)와 십선(十善)을 수행합니다.

The Brahma Heavens include the Great Brahma (Mahabrahma) Heaven, the Multitudes of Brahma (Brahmakayika) Heaven, and the Ministers of Brahma (Brahmapurohita) Heaven. Beings of the Six Desire Heavens and the Brahma Heavens practice the five precepts and the ten good deeds.

이들이 오계와 십선을 수행했기 때문에, 천상의 복과 보상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오계와 십선 수행은 유루선근(有漏善根) 즉 새는 것이 있는 선근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루근(有漏根) 즉 새는 것이 있는 뿌리를 심는 것은 다른 누구하고도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건 인법계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Because these beings cultivated the five precepts and the ten good deeds, they obtain the blessings and rewards of the heavens. However, the cultivation of the five precepts and the ten good deeds plants good roots that have outflows, so the verse says: Planting seeds with outflows. It has nothing to do with anyone else at all. [Note: This last line is actually from the verse for the Dharma Realm of People.] You yourself are responsible.

불경에 있는 법을 설명하는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 법을 설할 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스님이 잘못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히 그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도 난 그 텔레파시를 받습니다. 내가 마지막 문장을 고치겠습니다. 이들은 윤회에 끝을 내지 못합니다. 이번엔 내가 맞았나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제자들: “네!”] 하!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것

이 한 사람이 아니군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나머지 분들도 인정을 하세요. [다른 제자도: “네, 저도 그랬어요”] 정직해야 합니다. 만일 정직하지 않다면 절대로 득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It's not easy to explain the Dharma in the Sutras. When I speak, I don't prepare ahead of time. "The Master said it wrong," some of you are thinking, but you don't dare to say it aloud. However, once you say it in your mind, strangely enough, I receive your telegram. So I'll correct the last line: They cannot terminate their transmigration. Am I right this time? Did you say in your mind that I said it wrong? [Disciple: Yes."] Ha! It wasn't just one person who thought that way. The rest of you should also admit it if you were having such thoughts. [Another disciple: "Yes, I was."] You have to be honest. If you aren't honest, you will never attain the Way. [Other disciples also admit that they were thinking that way.]

아수라법계 阿修羅法界

The Dharma Realm of Asuras

계송 Verse:

수라성폭 유복무권

修羅性暴 有福無權

호용투한 부침업견

好勇鬥狠 浮沉業牽

아수라들은 폭력적인 성품이 있고, 복이 있지만 권세는 없다.

심하게 싸우기를 좋아하고, 업을 끄는데 부침浮沉하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Asuras have a violent nature, Laden with blessings, lacking power.

Absolutely determined to fight, They bob along in karma's tow.

주석 Commentary:

아수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추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성 아수라는 극단적으로 못생겼지만 여성 아

수라는 아름답습니다. 남성 아수라 성품은 즉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여성 아수라도 싸우는걸 좋아하지만 은밀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여성 아수라는 남성 아수라의 공공연한 신체적인 싸움과 달리, 질투, 방해, 무명(無明), 번뇌와 같은 마음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Asura is a Sanskrit word that means "ugly." Male asuras are extremely ugly; the females are beautiful. It is the nature of the male asura to initiate fights. The female asura is also naturally fond of fighting, but wages covert wars, unlike the overt physical battles of the males, using weapons of the mind such as jealousy, obstructiveness, ignorance, and affliction.

이따금 세 가지 좋은 법계에 천법계, 인법계 그리고 아수라계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어떨땐 아수라계를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의 사악도(四惡道) 중 하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Sometimes this realm is included in the Three Good Realms—gods, humans, and asuras. At other times they are classified as one of the Four Evil Realms—hell-beings, hungry ghosts, animals, and asuras.

축생법계, 인법계, 천법계와 아귀 중에도 아수라가 존재합니다. 아수라는 독립된 한 법계이긴 하지만 다른 법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어떤 법계에 있든 싸움을 걸고 성격도 안 좋습니다. 이들은 상사처럼 이래라저래라 하기를 좋아하고, 통제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에 의해 통제가 안됩니다. 이것이 아수라의 성격입니다.

There are asuras in the animal realm, in the human realm, in the heavens, and among the hungry ghosts. Although the asuras are an individual Dharma Realm by themselves, they appear in the other realms as well. In general, regardless of what realm they are in, they like to pick fights, and they have bad tempers. They enjoy bossing others around and like to be supervisors, but they can't stand supervision. They won't be controlled by others. These are the characteristics of asuras.

여러분이 아수라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들 중 아수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교와 군인들과 같은 좋은 아수라가 있고, 강도, 도둑, 깡패, 살인자 등의 나쁜 아수라도 있습니다. 우린 인간 세상에서 이런 아수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If you haven't noticed the asuras, I can tell you more about them. Among people, asuras can be good or bad. The good asuras include military officials and troops, and bad asuras are bandits, thieves, robbers, thugs, murderers, and the like. We can see these asuras in the world of men.

천상에도 아수라는 있습니다. 천상의 아수라는 샤크라 (옥황상제)의 천상 군대에게 싸움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옥황상제를 쫓아내서 옥좌를 가로채고, 천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전략을 쓰던 상관없이 항상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유복무권(有福無權) 즉 복은 있으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상 왕생을 얻을 복은 쌓았으나 거기서 권력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천상 군대와의 전투에서 언제나 패배합니다.

There are also asuras in the heavens. Heavenly asuras wage battles against the heavenly troops of Shakra. From morning to night, they attempt to overthrow Shakra so that they can seize his jeweled throne and become the heavenly king. But no matter what strategy they use, they are always defeated, because they are "laden with blessings, lacking power." They have accumulated the blessings that earn them rebirth in the heavens, but they have no authority there. For that reason, they are invariably defeated in their battles with the heavenly troops.

축생계에도 아수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로 호랑이가 축생 중 아수라입니다. 사자나 늑대도 또한 축생 중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다른 동물을 괴롭힙니다. 늑대, 호랑이, 사자는 먹잇감으로 다른 동물을 죽입니다. 이들은 아수라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뱀이나 독수리도 아수라입니다.

Are there asuras in the animal realm? Yes. Tigers, for instance, are asuras among the animals. Lions and wolves are also asuras among the animals. These asuras bully the other animals. Wolves, tigers, and lions kill other animals for food. They prey on other animals because they have the nature of asuras. Snakes and eagles are also asuras.

일반적으로 아수라는 완전히 불합리적이며 성질이 썩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위로 폭발합니다. 화가 너무 많습니다!

In general, asuras are utterly unreasonable and have huge tempers. They are constantly blowing their tops. Too much temper!

아귀계에도 아수라가 있는데,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귀신을 괴롭힙니다. 아귀계에도 착한 귀신과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완전히 비합리적입니다. 귀신은 이미 합리적이진 않지만 이런 아수라 귀신은 더욱 심하게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절에서 말하길 아수라는 폭력적인 성품이 있고, 폭발적인 성미가 있다고 합니다.

There are also asuras in the hungry ghost realm, and they go around bullying other ghosts. The realm of hungry ghosts has kind ghosts and evil ghosts. Evil ghosts are utterly unreasonable. Ghosts are not reasonable to begin with, but these asura ghosts are even

more unreasonable. And so the verse says: Asuras have a violent nature. They have explosive tempers.

유복무권(有福無權). 이들은 천상의 복은 있지만 권위가 없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특권을 위해 싸우지만, 얻지는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싸우는걸 사랑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현대 사회는 아수라의 세상입니다. 모두들 서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 노력하면서 싸우고 힘들어합니다.

Laden with blessings, lacking power. They have heavenly blessings, but lack heavenly authority. They fight for power and advantages, but fail to obtain them. Absolutely determined to fight: they love to fight and wage war. The modern world is a world of asuras—everyone is fighting and struggling, trying to knock each other down.

아수라는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심지어 천년 동안 매우 공격적으로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치지 않고 천년간 싸울 수도 있습니다.

Asuras are so belligerent that they can keep fighting for one hundred, two hundred, three hundred, five hundred, or even a thousand years. They could fight for a thousand years without getting tired of it!

이것이 투쟁견고시(鬪諍堅固時)이며 말법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법시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법이 만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정법이 만연할 것이라고 발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정한 법소(法所)가 될 것입니다. 만일 모두가 이런 서원을 이룬다면 말법시대는 정법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돌릴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Age Strong in Fighting and also the Dharma-Ending Age. Nevertheless, we don't want it to be the Dharma-Ending Age; we want the Proper Dharma to prevail. We should vow that wherever we go, the Proper Dharma will prevail. If we do that, every place we go will become a place of genuine Dharma 正法的地方. If everyone fulfilled this vow, the Dharma-Ending Age would become the Proper Dharma Age. We can turn the situation around.

부침업견(浮沉業牽). 아수라는 천상, 인간계 또는 축생이나 아귀계에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업력(業力)에 끌려와 미혹하게 되었고, 더 많은 업을 짓고 과보를 겪습니다. 업력이 여러 법계에서 과보를 겪도록 이들을 끌어당깁니다. 수행자는 적대적이 되거나 화가 달아오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수라계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They bob along in karma's tow. Asuras may be born in the heavens, in the human realm, or in the realms of animals and hungry ghosts. Dragged by the force of their karma, they become deluded, create more karma, and undergo the retribution. The force of their karma pulls them to undergo retribution in various realms. Cultivators should take care not to be belligerent and hot-tempered. Then they won't get dragged into the asura realm.

9개 중 5개의 법계에 아수라가 있습니다. 축생계에서 하늘, 땅, 물에 있는 생물 중 아수라가 있습니다. 악어가 물속에 있는 아수라의 예입니다. 야생종마가 말 중에서 아수라입니다. 이들은 무리에 문제와 소란을 불러옵니다. 대부분의 황소도 아수라입니다. 황소는 자신의 강한 아수라 기질을 보여주기 위해 두뿔로 여기저기 들이받습니다. 개는 더욱 더 아수라 성품이 있으니,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아수라와 가까운 연관이 있겠지요. 아수라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들과 가까워집니다. 이들에게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수라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모두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아수라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Five of the nine Dharma Realms have asuras. In the animal realm, there are asuras among creatures that fly in the air, those on the land, and those in the water. Crocodiles are an instance of asuras in the water. Wild stallions are asuras among horses. They bring trouble and disturbance to the herd. Most bulls are asuras, too. They butt their two horns against things to show their tough asura disposition. Bulls are asuras by nature. Dogs have even more of an asura nature, so people who own dogs are in close association with asuras. If you hang around asuras, you become closer to them. And getting close to them is dangerous; you might just fall into the realm of asuras. Everyone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and not run into the realm of asuras!

인법계 人法界

The Dharma Realm of People

계송 Verse:

인도화합 人道和合 공죄상간 功罪相間

덕승열강 德升孽降 개유타언 豈有他焉

인간의 길은 화합이고, 공과 죄가 서로 뒤섞여 있어,

덕으로 상승하고, 과보로 하강한다. 이게 어찌 다른 사람과 상관이 있겠는가.

The way of men is harmony, With merit and error interspersed.

On virtuous deeds you rise; offenses make you fall. It has nothing to do with anyone else at all.

주석 Commentary

아수라의 세상은 위험하지만, 인간의 법계는 어떤가요? 선하고 악한 인간 둘다 있습니다. 인류의 방식은 화합입니다.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조화로운 존재입니다.

The realm of asuras is dangerous, but what about the realm of people? There are both good and evil people. The way of men is harmony. People are harmonious beings who are capable of getting along with anyone.

하지만 인간이 된 이들은 완전히 선하지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선한 이들은 천상에 왕생하며, 반대로 철저히 악한 이는 축생이나 아귀가 되거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은 공과 죄를 모두 짓습니다. 한 사람의 공功이 죄罪보다 더 크면, 부유하고 좋은 가족에 태어날 것이고, 작은 공과 무거운 죄를 가진 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However, those who become human beings are neither completely good nor completely bad. Beings who are completely good are reborn in the heavens, while those who are thoroughly bad become animals or hungry ghosts or fall into the hells. People have both merit and offenses. When a person's merit is greater than his offenses, he will be born into a rich and distinguished family, but one with small merit and heavy offenses will be born into a poor family.

이런 극과 극은 천가지 다른 점이 있고, 무수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송에서 말하길, “공죄상간 功罪相間” 즉 “공과 죄가 뒤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공이 있으면 또한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음도 아니고, 극단적인 양도 아닌 것입니다. 음의 기운이 우세한 존재는 귀신이 됩니다. 대부분이 양의 기운인 이는 천신이 됩니다. 인간은 되지 않습니다.

Between these extremes are a thousand differences and a myriad distinctions. Therefore, the verse says: With merit and error interspersed. They have some merit, and they also have some offenses; they are neither extremely yin nor extremely yang. Beings with a preponderance of yin become ghosts. Those who are mostly yang become gods; they don't become humans.

인간은 천상으로 승천할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상승하고

죄를 지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송에서 말하길 “덕승열항 德升孽降” 즉 덕으로 상승하고, 과보로 하강한다고 합니다.

Human beings can ascend to the heavens or fall into the hells. If you do good deeds, you ascend; if you commit offenses, you fall. So the verse says: On virtuous deeds you rise; offenses make you fall.

“개유타언 豈有他焉” 즉 이것은 다른 어떤 이와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지, 귀신이 되는지 또는 축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은걸 견뎌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괴로워야만 합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anyone else at all. Other people cannot tell you to fall into the hells, make you a ghost, or cause you to become an animal. It is entirely up to you. What you create you must endure. You must suffer the consequences of your own actions.

축생법계 畜生法界

The Dharma Realm of Animals

계송 Verse:

축생호탐 畜生好貪 다이무염 多而無厭

장흑작백 將黑作白 시비막변 是非莫辨

축생은 탐하길 좋아하고,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흑을 백으로 만들고, 시비를 분별하지 못한다.

Eager animals feed on greed, Never sated by a lot.

They take what's black as white, And can't distinguish wrong from right.

주석 Commentary:

불법계, 보살법계, 연각법계, 성문법계, 천법계, 수라법계, 인법계의 일곱가지 법계는 좀 더 나은 법계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법계에 들어가서 배우가 연기하듯이 테스트해봐도 됩니다. 하지만 그외 세가지 법계 주변에서는 함부로 놀아선 안됩니다. 이 세가지 법계를 테스트해보다가 빠

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잃으면 다시 인간의 몸을 얻을 수 있기까지 일만겁 세월이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연극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내 제자 중 하나가 마치 연극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했는데, 그건 그 제자가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The seven Dharma Realms discussed above are the better ones. If you wish, you can enter them to try them out—put on a play—but you shouldn't play around with the remaining three Dharma Realms. If you try these out, you may not be able to escape. It is said that once you lose your human form, ten thousand eons may pass before that form can be obtained again. It's very dangerous; you shouldn't treat it as mere play—acting. One of my disciples compared it to putting on a play, but he doesn't rea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세상엔 몇억마리의 축생이 있으며, 그 종류도 무궁무진합니다. 날짐승, 바닥을 기어다니는 동물, 수영하거나 걷는 동물 즉 하늘 위, 땅 위 그리고 물속에 수없이 많은 축생이 있습니다. 새와 같은 날짐승만 해도 몇백만이며, 육지동물도 적지가 않습니다. 작은 쥐부터, 소, 말, 사슴, 곰과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까지 육지동물도 몇백만이 있습니다. 물엔 물개, 물소, 해마, 바다소 등 무수하게 다양한 물짐승이 있습니다. 이런 동물을 모두 공부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학, 생물학, 이에 관련된 학문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박사조차도 세상의 모든 종의 동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일 1,000가지 종을 안다면, 1,100종은 모릅니다. 만일 1,100가지 종을 안다면, 1,200종은 알지 못합니다.

There are billions of animals, an infinite variety—flying, crawling, swimming, or walking—in the sky, on land, and in the water. The species of birds and flying animals alone number in the millions, and land animals are not a few, either. There are millions of land animals ranging from small rodents through cows, horses, deer, and bears to the mighty elephant. In the water are seals, water buffalo, sea horses, manatees, and a myriad variety of swimming creatures. We could never thoroughly study and understand all these animals. Even Ph.D.'s in the areas of zoology, biology, and related fields who do extensive and continuous research have no way to know all the animal species in the world. If they know a thousand, they don't know eleven hundred. If they know eleven hundred, they don't know twelve hundred.

어떤 이가 축생에 대해 모두다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이가 아는게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종의 동물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곤충의 종류가 몇인지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여러층으로

무한하며, 무한하고 여러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這個世界是重重無盡，無盡重重？

Although someone might claim to know them all, how can he be certain that someone doesn't know more than he does? It's impossible to be sure. We have no way to completely know all the species of animals. Even the number of different kinds of insects would be hard to determine. When examined like that, wouldn't you say that the world is multilayered and infinite, infinite and multilayered?

축생이 되는 중생은 단 한가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건 탐심입니다. 욕망이 큰 동물은 탐심으로 먹고 삽니다. 이들에겐 뭐든 상관없이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은 양으로 안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탐하며, 더 많은 것에 실증나지 않습니다.

Beings become animals as the result of one thing: greed. Eager animals feed on greed. For them, no matter what it is, the more the better. A little won't do. They are insatiably greedy; they never get tired of more.

많은 것으로 절대 물리지 않으므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아! 하얗네”라고 말합니다. 검은 것을 하얗다고 받아들입니다. 모든걸 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을 먹을 정도로 탐합니다. 개는 대변을 더 많이 먹으면 먹을 수록, 더 좋아합니다. 사람은 개가 이렇게 더러운 걸 어찌 먹을까 궁금해 하지만, 개는 한입 씹 먹을 때마다 더 맛있다고 느낍니다. 개는 원래 그런 것이고, 많다고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색을 하얗다고 보는 예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쾌한 것을 기뻐합니다. 탐심은 더 많은 질병을 위한 욕망까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병이 하나인 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둘을 원합니다. 더 많은 약을 먹고 싶어 합니다.

Since they are never sated by a lot, they can't tell that black is black. They say, "Oh, it's white!" They take what's black as white. Because they are greedy for everything, they have no conceptions we consider reasonable—even to the point that they are greedy to eat excrement. The more excrement a dog eats, the better it likes it. People wonder how it can eat such filth, but the dog finds it more savory with every mouthful. That's how they are—never sated by a lot! That's an example of taking black as white: They delight in something that is basically unpleasant. Greed can extend even to the desire for more sickness. One sickness is not enough; they want two. They also want to take more medicine.

그리고 시비를 가리지 못합니다. 동물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시비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그냥 탐심이 있어서입니다. 동물은 혼란스러워하고, 무명無明이 뒤덮어서, 어떤 합리적인 것도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And they can't distinguish wrong from right. Animals are not clear about right and wrong, because they lack the ability to reason. How did they get that way? Simply through greed. They become muddled, and ignorance envelops them so that they become totally oblivious to anything rational.

염두에 두고, 탐하지 말라. 출가자는 돈을 탐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탐심이 여러분을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하며, 결과적으로는 축생으로 태어나기 쉽습니다.

Take heed, and don't be greedy. People who have left the home-life should not be greedy for money, but some say "the more the better!" Such greed puts you in grave danger, and it is easy to become an animal as a result.

여러분이 “구도자(출가자)의 인생으로 들어간 자는 (더 낮은 법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People who enter monastic life can't fall, " you may say.

만일 출가자가 부처님 계율에 따라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떨어질 것입니다. 옛말에 “지옥 문에 서있는 많은 이들은 승려와 도교인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탐심을 많이 냈던 도교인과 스님들이 지옥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빨리 빨리... 서둘러 나 들어가게 해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많이 재미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에 엔터테인먼트가 제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갑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는걸 알게 됩니다.

If they don't cultivate according to the Buddha's precepts, they will fall even faster. The ancients had a saying, "Many of those standing at the gates of the hells are Sanghans and Taoists." All the old Taoists and Buddhist monks who were greedy are waiting at the doors of hell saying, "Quick! Send me to the hells. Hurry up and let me come in!" Once in, it's a lot of fun inside. They think the hells will provide good entertainment, so they go there. But once they arrive they realize it is not a game.

아귀법계 餓鬼法界

The Dharma Realm of Hungry Ghosts

계송 Verse:

귀류희진 鬼類喜嗔 매과미인 味果迷因

무명전도 無明顛倒 일적월심 日積月深

귀신의 무리가 성내는 것을 기뻐하고, 결과에 어둡고 원인에 미혹하다.

무명과 전도(위와 아래가 뒤집힘)가 매일 더 커지고, 매달 더 깊어지네.

The ghostly crew delights in hate, Deluded by effects, confused about cause;

Their ignorance and upside-downness Grow greater each day, deeper each month.

주석 Commentary:

거의다 귀신에 대한 이야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귀신이 있다고 믿진 않습니다. 불교 인조차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은 음(陰)의 기운 덩어리로 그림자만 있고 형태가 없습니다. 또는 형태만 있고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가까이 살펴보라고 하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본것 같았는데, 눈 깜짝할새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런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Almost everyone has heard of ghosts, but not everyone believes in them. There are even Buddhist disciples who don't believe there are ghosts. Ghosts are masses of yin energy that have shadow and no form, or form and no shadow. Perhaps you have seen a dark shadow, but when you looked closer it disappeared. Or perhaps you've seen what seemed like a person, but which vanished in the blink of an eye. Such phenomena are difficult to understand.

우리는 지금 십법계 중 귀신의 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종류의 귀신이 존재합니다. 무한하게 많은 종류의 귀신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부유하고 꽤 강력해서, 왕으로써 귀신 세계를 통치합니다. 어떤 귀신은 불쌍하고 시달리기만 하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처지가 불쌍한 귀신이 사람을 귀찮게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일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오안육통(五眼六通) 즉 다섯 가지의 눈과 여섯 가지神通력이 열리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Among the Ten Dharma Realms, we are now discussing the Dharma Realm of ghosts. There are as many different kinds of ghost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anges River. There are infinitely many kinds of ghosts. Some are affluent and powerful ghosts that reign as kings over the ghosts' realm. Some ghosts are poverty-stricken and devoid of authority—it is often the poor ghosts who bother people and go about causing trouble. If you want to know how many kinds of ghosts there are, work hard at cultivation, open the five eyes and six spiritual penetrations, and then you'll know.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귀신이 없다면 부처님, 인간, 동물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윤회하여 동물이 되고, 인간, 아수라, 심지어 천신, 아라한, 연각, 보살,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모든 법계는 귀신의 법계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십법계는 마음의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한 생각 즉 일념이 십법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As to people who say there are no ghosts, I tell them that if there are no ghosts, then there are also no Buddhas, people, or animals, because animals are transformed from ghosts, as are people, asuras, and so forth, even to gods, Arhats, Pratyekabuddhas, Bodhisattvas, and Buddhas. All realms come from the realm of ghosts, because the Ten Dharma Realms are not apart from a single thought of the mind, and one thought of the mind creates the Ten Dharma Realms.

여러분이 스스로 귀친처럼 행동하면 귀신 세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처럼 행동하면 인간계로 오게 됩니다. 아수라처럼 행동하면 아수라 계급으로 들어갑니다. 아라한의 수행을 생각하면, 아라한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연각처럼 행동하면 그 법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살행을 하면 보살의 권속菩薩的眷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일을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만일 지옥 같은 죄를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한 생각 즉 일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법계가 마음의 일념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By conducting yourself as if you were a ghost, you fall into the ghosts' realm. Acting as a person does, you come to the human realm. Behaving like an asura, you join the ranks of asuras. Assuming the practice of an Arhat, you enter the realm of Arhats. Behaving like One Enlightened to Conditions, you enter that realm. Doing the deeds of a Bodhisattva, you join the retinue of Bodhisattvas. Performing the work of a Buddha, you realize Buddhahood. If you commit hellish offenses, you fall into the hells. All of this is brought about by the one thought that is right now in your mind. Thus we say that the Ten Dharma Realms are not

beyond a single thought.

귀류희진 鬼類喜嗔. 사람이 귀신들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폭발하는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잘 대해줘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잘해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옛말에 “향을 하나 피우면 앞에 있는 귀신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귀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전에는 귀신이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들과 한번 알게 되면, 골칫거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공자가 말하길 “귀신과 영가들을 존경하되,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했습니다. 귀신과 영들에게 존중해 주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The ghostly crew delights in hate. Ghosts enjoy exploding in a fiery rage when people are not good to them, and even when treated well they still get angry. They like nothing better than giving people trouble. They give you trouble whether you are good to them or not. There is an old saying: "Lighting a stick of incense calls forth ghosts." People light incense to pay respect to ghosts. Before you've paid respect to them they don't bother you, but once you make their acquaintance, the ghosts become a nuisance, make you sick, or give you some other trouble. Confucius said, "Respect the ghosts and spirits, but keep them at a distance." It is wise to pay respect to the ghosts and spirits, but otherwise keep your distance and don't get too close to them.

매과미인 昧果迷因. 귀신은 결과에 대해 잘 모르고,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좋은 과실을 얻게 됩니다. 멜론을 심으면 멜론을 얻게 되고, 콩 심으면 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지를 심어 놓고, 고추를 먹고 싶어 합니다. 또 매운 고추를 심어 놓고는 오이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귀신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므로, 무모하고 혼돈스럽게 행동합니다.

Deluded by effects, confused about cause. They are unclear about results and don't understand their causes. As a result, they can't tell good from bad. Basically if you plant a good cause, you reap a good fruit; if you plant a bad cause you reap a bad effect. If you plant melons you get melons; plant beans and you'll get beans. Ghosts don't understand that. They plant eggplant and anticipate eating hot peppers, or plant hot peppers and think they will harvest cucumbers. Since they have no comprehension of principles, they act recklessly and in confusion.

무명전도 일적월심 無明顛倒 日積月深. 귀신은 업 즉 카르마를 계속 많이 축적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전도(위와 아래가 뒤바뀐)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업을 더 많이 지을수록, 무명은 더 깊어만 집니다. 무명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Their ignorance and upside-downness / Grow greater each day, deeper each month. They accumulate a lot karma every day. Their ignorance and upside-downness become deeper with each passing month. The more karma they create, the deeper their ignorance gets, and the deeper it gets, the more offenses they commit.

지옥법계 地獄法界

The Dharma Realm of Hell-beings

게송 Verse:

지옥우고 地獄憂苦 무문자찬 無門自鑽

기혹조업 起惑造業 수보회권 受報迴圈

지옥의 근심과 괴로움은 문이 없으니 곧바로 들어간다.

미혹이 일어나 업이 생기니, 그에 따라 업보를 되돌려 받는다.

The hells' anxiety and suffering is devoid of doors, yet one bores right in.

Giving rise to delusion, deeds are done. The retribution is borne in due accord.

주석 Commentary:

지옥은 비참한 곳입니다. 누구든 지옥에서 휴가를 지내고 싶다면 아무때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보장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hells are a miserable place. Anyone who would like to take a vacation in the hells can do so any time at all. I can guarantee that you'll get there right away. How? It is said,

우울하고, 슬프면, 지옥 속에서 방황한다. 愁—愁, 就地獄遊—遊。

Depressed and melancholy, you roam through the hells.

[여기부터 선화 상인의 설명] 행복하고 웃으면, 영원한 젊음을 즐긴다.

Happy and smiling, you enjoy eternal youth.

울먹임과 비통함이 지옥의 작고 어두운 방을 만든다.

Weeping and woe make a small dark room in the hells.

당신이 걱정을 시작하면, 지옥으로 여행가서 휴가를 지내게 됩니다. 걱정은 지옥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천상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ce you become worried, you travel to the hells to take a vacation. If you get worried, you plant a seed for the hells. If you smile, you plant a seed for the heavens. It is said,

예부터 불멸의 신은 별도로 다른 수행 없이 그저 행복하고 슬프지 않은 것이다.

From ancient times, the divine immortals have had no other practice / Than merely being happy and not being sad. 自古神仙無別法, 只生歡喜不生愁。

당신이 우울해지면 지옥으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늘 미소를 짓고 있다면, 늙어도 젊어 보입니다. 당신이 울면 자기 자신을 많이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If you become depressed, you take a trip to the hells. If you smile all the time, you look youthful even if you are old. If you cry, you give yourself a lot of vexation.

일반적으로 지옥에 행복은 없습니다. 지옥은 고통과 비탄으로 가득합니다. 지옥우고 무문자찬(地獄憂苦 無門自鑽) 즉 지옥의 근심과 괴로움은 문이 없지만 곧장 들어갑니다. 범죄자를 위한 감옥과 달리, 지옥엔 문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만 해서 거기 도착했을 때, 마치 문이 열려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문이 없는 곳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In general, there is no happiness in the hells. They are full of suffering and distress. The hells' anxiety and suffering / Is devoid of doors, yet one bores right in. Unlike jails built to hold criminals, the hells haven't any doors. However, if you are due to go to hell, when you arrive it is just as if a door opened, because you find yourself worming and boring in where there was no entrance.

기혹조업 수보회권 (起惑造業 受報迴圈) 즉 미혹이 일어나 업이 생기니, 그에 따라 업보를 되돌려 받는다. 왜 지옥으로 갈까요? 무지와 번뇌는 여러분을 멍청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악업을 짓고, 선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업보를 되돌려 받습니다. 악업을 지으면, 업보를 겪기 위하여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지은 업이 어떤지에 상관 없이 정확한 변제(상환)를 받으며, 그 업보는 머리카락두께 만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Giving rise to delusion, deeds are done. Why do you go to the hells? Ignorance and afflictions make you stupid and confused, so you create bad karma and don't do good deeds. The retribution is borne in due accord. When you create bad karma, you fall into the hells to

undergo the retribution. There is no end to this cycle once it starts. You receive exact repayment for whatever karma you create, and the retribution is never off by even a hair's breadth.

계송 Verse:

십계일심 十界一心 불이당념 不離當念

능각차념 能覺此念 입등피안 立登彼岸

십법계, 일심은 이 순간의 생각과 떨어져있지 않다.

능히 당신이 그 생각에 깨어날 수 있다면, 즉시 피안에 도달할 것이다.

All of these ten realms—a single thought—Are not apart from your present thought.

If you can awaken to that thought, You'll arrive immediately at the other shore.

주석 Commentary:

부처님들, 보살님들, 성문과와 연각들은 4가지 성자의 법계입니다; 천인, 인간, 아수라, 지옥의 존재와 아귀, 축생은 여섯개의 평범한 법계(육도)입니다. 모두 합해서, 십법계가 됩니다. 이 십법계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 있는 그 일심(한 생각)으로부터입니다. 이 십법계가 모두, 한 생각이 이 순간의 생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Buddhas, Bodhisattvas, Hearers, and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are the Four Sagely Dharma Realms; gods, human beings, asuras, hell-beings, hungry ghosts, and animals are the Six Common Dharma Realms. Together, they make up the Ten Dharma Realms. Where do the Ten Dharma Realms come from? From the single thought which is right now in your mind. *All of these ten realms—a single thought—Are not apart from your present thought.*

능히 그 생각에 깨어날 수 있다면, 만약 그걸 해야될 수 있다면, 즉시 피안에 도달할 것이다. 피안은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깨달으면 그땐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무명無明이 부셔지고, 법신法身이 드러날 때, 피안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If you can awaken to that thought, if you can understand it, you'll arrive immediately at the other shore. The other shore is enlightenment. When you become enlightened, you are no longer confused. When ignorance is smashed and the Dharma-body appears, you arrive at the other shore. This is Mahaprajnaparamita.

여의마녀 如意魔女

The As-You-Wish Demon Woman

갑자기 “여의마녀”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주 시대에 벼락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난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벼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법을 연습해서 통달했는데, 그후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나를 만나서 삼보에 귀의하였고, 스스로를 개선하였습니다. 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한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오더라도,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I've suddenly thought of the story of the “As-You-Wish Woman.” She was a ghost that had been shattered by thunder in the Zhou Dynasty. She then practiced a kind of magic that protected her from thunder, and when she mastered it, she went around causing trouble. Later she met me, took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and reformed herself. I could write an entire book on this.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her; even if she were to come here, she wouldn't harm anyone.

27년 전 [1945년], 2월 12일 만주의 주족역을 지나갔습니다. 그 동네에 “도덕회道德會”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회원들이 매일 도덕에 관한 강좌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 중 몇은 내 제자이어서 지나갈때마다 보통 몇일씩 그 동네에서 머물렀습니다.

Twenty-seven years ago [1945], on the twelfth day of the second month, I passed through the Zhou family station in Manchuria. In the town there was a Virtue Society whose members met daily for lectures on morality. Since some of the members were my disciples, I would usually stay in the town for a few' days when I passed through.

이번엔 생년월일 그리고 시간 8자로 운세를 보는 중국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운세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운세를 보더니 말하길, “공무직에 있어야 했는데, 어째서 출가하셨나요? 원하셨으면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겁니다.”

This time I met a Chinese astrologer who cast people's horoscopes by looking at the eight characters (two for the year, two for the month, two for the day, and two for the hour) of their birth. His horoscopes were very efficacious. He cast my horoscope and said, “You should be an official. Why have you left home? Had you wanted to, you could have been a great official.”

“나는 어떻게 공무원이 되는지 전혀 몰라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난 불교 승려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요.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I haven’t any idea how to be an official,” I said. “But I do know how to be a Buddhist monk, and so I have left home.”

“안쓰럽네요”, 라고 말하면서 내 손을 봤습니다. “최소한” 그가 말하길 “국가 정상 학자는 될 수 있었어요”

“What a pity,” said the astrologer, and he looked at my hands. “At the very least,” he said, “you could have been a top-ranking imperial scholar.”

“아니요” 내가 대답했어요. “꼴찌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No,” I said. “I couldn’t even have come in last.”

그가 손꿈을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 올해 아주 운 좋은 일이 일어나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He looked my hands again and said, “Oh, this year something very lucky will happen to change your life!”

“어떤 일이 그럴까요?”라고 물어봤습니다.

“What could that be?” I asked.

“다음 달 10일 후에 당신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After the tenth of the next month you will be different from now,” he replied.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Different in what way?”

“지금은 1,0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믿지만 다음달 10일 후엔 10,000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Right now, all the people within 1000 li [350 miles] believe in you, but after the tenth of next month, everyone within 10,000 li [3500 miles] will believe in you.”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How can that be?” I asked.

“때가 되면, 알게 될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When the time comes, you will know,” he said.

이틀 후 둘째달(2월) 14일 또는 15일(二月十四、十五的樣子) 제4구四屯에 있는 치앙바이치

(Xiangbaiqi, 鑲白旗)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인 샤준상(夏遵祥)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60세가 넘었고, 30명 정도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 중 하나였으며, 불교나 그 어떤 것도 한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날 만났을 때, 날 믿고, 나에게 삼귀의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귀의를 했고, 난 그 마을에 갈 때마다 그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번엔 30명이 넘는 그의 가족이 날 만난걸 극도로 좋아했습니다. 난 거기서 10일간 지냈고, 72명 정도가 와서 귀의를 하였습니다.

Two days later, on the fourteenth or fifteenth of the second month, I went to the village of Xiangbaichi, fourth district, and stayed with my disciple Xia Zunxiang, who was over sixty years old and had a family of over thirty people. He was one of the richest landowners in the area and had never believed in Buddhism or anything else. But when he saw me, he believed in me and wanted to take refuge with me. He and his whole family took refuge, and every time I went to the village I'd stay at his house. His family of over thirty was extremely happy to see me this time. I stayed with them for ten days, and about seventy-two people came to take refuge.

나는 25일 상청현(雙城縣)에 가기 위해 “샤”씨의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거기가 25마일 (70리)밖에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출발했습니다.

On the twenty-fifth, I set out in Mr. Xia's cart for Shuangcheng County. Since it was over seventy li [25 miles] away, we left at three o'clock in the morning.

이른 봄이었지만,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마부와 조수는 털코트, 바지와 모자를 입었습니다.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얇은 면 3겹으로 된 평범한 누더기 장삼과 면 2겹으로된 바지를 입고, 양말 없이 다 뚫린 승가용 샌달을 신고, 귀를 덮지 않는 모자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공(濟公) 스님이 썼던 그런 종류의 모자였습니다.

Although it was early spring, the weather was bitter cold. The driver and the attendant were dressed in fur coats, trousers, and hats. Being very poor, I wore only my usual rag robe made of three layers of thin cotton cloth, trousers made of two layers of cloth, open Arhat sandals with no socks, and a hat shaped like folded palms that didn't cover my ears. That was the kind of hat that Master Ji Gong wore.

우리는 새벽 3시부터 동틀녘까지 달려서, 아침 7시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마부와 조수는 내가 옷을 너무 부실하게 입어서 얼어 죽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중간에 섰지만, 나는 여행 시작부터 계속 마차에 있었습니다. 상청현(雙城縣)의 동문에 도착해서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 마부가 외쳤습니다. “와우, 우리는 스님이 확실히 얼어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We rode from three in the morning until dawn, reaching the city at seven in the morning. The driver and the attendant thought I would freeze to death, since I was so insufficiently dressed. They had stopped keep warm, but I had remained in the cart from the beginning of the trip. When we arrived at the eastern gate of Shuangcheng County and I got out of the cart, the driver exclaimed, “Oh, we thought surely you find frozen to death!”

나는 10일이상 호법 재가자인 친구들과 함께 지냈고, 3월 9일에 치양바이치(鑲白旗)에 있는 샤준상(夏遵祥)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내 최근 제자인 샤웬산(夏文山)의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6일 또는 7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패고 싶은 것처럼 지독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I stayed with friends, Dharma protecting laymen, for more than ten days, and on the ninth of the third month, I returned to Xia Zunxiang’s home in Xiangbaichi. When I arrived, he told me that one of my recent disciples, the daughter of Xia Wenshan, find fallen dangerously ill. She hadn’t eaten or drunk water for six or seven days. She did not speak, and she looked fiercely angry, as if she wanted to beat people.

그때 그녀의 모친이 와서, “사부님, 내 딸이 귀의를 한지 며칠 후에 아주 아프게 됐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노려보기만 하고, 그냥 머리를 침대에 박고만 있어요.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러니 나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제자 한간지(韓崗吉)는 오안(五眼)이 열려서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압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Then her mother came. “Master,” she said, “my daughter became very ill a few days after taking refuge. She won’t talk, eat, or drink, but just glares and sticks her head on the bed, I don’t know what illness she has.” I said to her, “I can’t cure her, so it’s useless to ask me. However, my disciple Han Gangji has opened his five eyes and knows people’s past, present, and future affairs. You should ask him.”

Han Gangji도 2월 24일에 귀의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출가하기 전 우리 둘은 좋은 친구였고, Virtue Society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내가 출가한 후 한간지(韓崗吉)가 오안(五眼)이 열려서, 그는 내가 세세생생 그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하고 귀의하기를 원했습니다.

Han Gangji had also taken refuge on the twenty-fourth of the second month. At first, I had refused to take him as a disciple, because before I had left home, the two of us had been good friends and had worked together in the Virtue Society. After I left home and Han

Gangji opened his five eyes, he saw that, life after life, I had always been his teacher. And so he wanted to take refuge with me.

내가 말하길, “우리는 좋은 친구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제자로 받을 수 있겠니?”

I said, “We’re good friends; how could I take you as a disciple?”

“그러나 만일 내가 너한테 귀의하지 않으면 이생에 확실히 떨어질거야” 한간지(韓崗吉)는 이렇게 말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을거라 했습니다.

“But if I don’t take refuge with you, I shall certainly fall in this life,” Han Gangji said, and he knelt on the ground and refused to get up.

나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결심했는데, 아마 30분정도가 지난 후 나는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귀의한 자는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너는 재주가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지. 그게 너를 교만하게 되도록 할 수 있을까? 너의 자존심이 내 지침에 복종하는걸 막을 것인가?”

I was just as determined not to accept him, but after perhaps half an hour, I finally said, “Those who take refuge with me must follow instructions. You have talent; you know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s it possible that it has caused you to become arrogant? Will your pride prevent you from obeying my instructions?”

“사부”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종할 것이네. 만일 네가 나한테 끓는 물이 있는 큰 솥으로 몸을 던지라고 하면, 내가 그리 할거이네. 만일 네가 나한테 불 위에서 걸으라고 하면 걸을거야 내가 물 속에서 끓거나 타서 죽더라도, 다 괜찮네”

“Master,” he said, “I’ll certainly obey. If you tell me to throw myself into a cauldron of boiling water, I’ll do it. If you tell me to walk on fire, I’ll walk. If I get boiled or burned to death, that’s all right”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야 할거야!”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침을 주면, 넌 그 지침을 무시해서 안돼”

“You’d better be telling the truth,” I said. “If I give you instructions, you can’t ignore them.”

“그게 어떤 지침이던 상관없이,”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나한테 그걸 하라고 말하면, 난 할거야. 어떤 위험이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No matter what it is,” he said, “if you tell me to do it, I will do it, and fear no danger whatsoever.”

그래서 한간지는 24일 귀의를 받은 72명 중 하나였습니다. 내 제자 중 한명이 아프다는 걸 듣고는, 내가 한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병을 진단할 수 있으니, 한번 봐라.” 한간지는 명상 자세로 앉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관조적 검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겁에 질려 하얗게 되었습니다. “사부님” 그가 말하길,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And so, Han Gangji was one of the seventy-two people who took refuge on the twenty-fourth. Hearing that one of my disciples was sick, I told Han Gangji, “You can diagnose illnesses. Take a look.” Han Gangji sat in meditation and made a contemplative examination of the illness. Suddenly his face blanched with terror. “Master,” he said, “we can’t handle this one. It’s beyond our control.”

於是乎在這七十二個人裡頭，他也就皈依了。聽說我的一個徒弟病了，我對韓崗吉說：“你能給人家看病，你給看一看啦！”他就坐那兒一打坐，這麼一觀想。突然，看他面啊，就嚇得那個樣子，不得了了，就害怕了。“師父！”他說：“這個事情不能管的！這個事情我無論如何管不了的！”

“무엇이길래?” 내가 물었습니다.

“What is it?” I asked.

“그 질병을 일으키는 마구니가 극도로 폭력적이고, 세상의 혼란과 인류에 위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간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The demon who is causing the illness is extremely violent and can assume human form to bring chaos into the world and injury to humankind.”

“무엇이 그 마구니를 그렇게 사납게 하는가?” 내가 물었습니다.

“What makes the demon so fierce?” I asked.

“그 마구니는 주시대 아주 오래 전 귀신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해서, 신통력을 가진 덕있는 사람이 천둥으로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의 영혼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강력한 마구니와 합해졌습니다. 그 마구니는 날 수 있고, 없어졌다 나타났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The demon was a ghost long ago in the Zhou Dynasty,” he said. “Because it didn’t behave properly, a virtuous man with spiritual powers shattered it with thunder. But the ghost’s spirit did not completely disperse, and it later fused into a powerful demon that could fly and vanish and appear again, at will.”

그 마구니는 마술의 무기를 정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외적인 항-천둥 도

구인데, 신생아 몸을 감싸는 얇은 막으로 된 검정 모자입니다. 그녀가 그 모자를 쓰면, 천둥이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천둥은 더러움을 크게 혐오하기 때문이에요.”

The demon has refined a magic weapon,” he continued. “It’s an exclusive anti-thunder device: a black hat made out of the thin membranes that cover the bodies of newborn children. When she wears the hat, the thunder cannot hurt her, because thunder has a great aversion to filth.”

서양인은 천둥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평범한 천둥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천신이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의 천둥이 있는데, 이는 온세상을 떠도는 도깨비, 마구니, 귀신을 처벌하는데 씁니다.

Westerners think that thunder has no one controlling it, and while that may be the case for ordinary thunder, there is a special kind of thunder that is used by gods to punish the goblins, demons, and ghosts who wander throughout the world.

그녀를 천둥에서 보호하는 그 검정 모자 외에도, 다른 두 개의 무기도 정제했습니다. 그건 두개의 둥근 공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에게 그녀의 모자를 씌우면, 그의 영혼은 그녀의 통제 하에 빠지고, 그러면 그는 그녀의 추종자가 되버립니다. 만일 그녀가 이 두개의 둥근 공 중 하나로 누군갈 치면, 그는 즉시 죽을겁니다.

In addition to the black hat, which protected her from thunder, she had refined two other magic weapons: two round balls. If she put her hat on someone, his soul would fall under her control, and he would become one of her followers. If she hit someone with one of the two round balls, he would immediately die.

한간지는 그녀가 그런 사나운 마구니임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사부니,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Han Gangji saw that she was such a fierce demon and said, “Master, we can’t handle this one.”

“그렇다면 그 아픈 여자아이는 어떻게 되나?” 내가 물었습니다.

“Then what will become of the sick girl?” I asked.

“그녀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She will certainly die; there’s no way to help her,” he said.

“그 여자아이가 죽게 둘 수 없다. 만일 그녀가 내 제자가 아니었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녀는 저번 달 24일에 나에게 귀의를 받았다.”

“I can’t allow her to die. If she weren’t my disciple, I’d pay no attention, but she took refuge with me on the twenty-fourth of last month.”

사람들이 귀의를 받았을 때, 나는 그들에게 대비주를 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대비주를 외우도록 배워야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걸 외우세요. 관음보살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 중 많은 수가 대비주를 외워왔습니다.

When those people had taken refuge, I had taught them to recite the Great Compassion Mantra. I had said to them, “Each of you should learn to recite the Great Compassion Mantra. It will be of great help to you. If you are in danger and distress and you recite it, Guanyin Bodhisattva will protect you.” Since then, many of them had been reciting the Great Compassion Mantra.

내가 말하길, “만일 그녀가 나에게 귀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마구니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거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귀의를 받았다면, 나는 마구니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가도록 허락할 수 없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I said, “If she hadn’t taken refuge with me, I wouldn’t care whether the demon took her life or not. But she took refuge with me, so I can’t allow the demon to take her life. I’ve got to do something.”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한간지가 말했습니다. “난 가지 않겠어요.”

“You take care of it, then,” said Han Gangji, “but I’m not going.”

“뭐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귀의를 받았을 때, 내가 묻는다면 끓는 물에도 뛰어들고, 불 위도 걷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이건 끓는 물이나 불도 아닌데, 왜 뒤로 물러서나?”

“What?” I said, “When you took refuge, you promised me that you would jump into boiling water or walk on fire if I asked you to. Now it’s not even boiling water or fire; why have you decided to back out?”

한가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만일 날 돌봐줄 호법신을 배치해준다면...”

Han Gangji had nothing to say. He thought it over. “If you appoint some Dharma-protecting gods to take care of me...”

“멍청한 소리하지 말게!” 내가 말했습니다. “만일 가겠다면, 그냥 가시게. 망설이지 말고!”

“Don’t shilly-shally!” I said. “If you’re going to go, go. But don’t vacillate!”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여자아이는 베게에 머리를 두고, 하부는 공중에 올리고 누워있었습니다. 당혹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처럼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He said no more and followed me. When we arrived, the girl was lying on the bed with her head on the pillow and her bottom sticking up in the air; it was an embarrassing sight. Her eyes were as wide as those of a cow, and she glared with rage at me.

나는 그녀의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이 뭔가요?”

I asked the girl’s family, “What is the cause of the illness?”

그들이 나에게 말하길, 7~8일 전, 50살 정도 나이든 여자가, 마을밖 외진 무덤 옆에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파랑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위로 올라간 두 개의 땃은 머리카락은 뒤로 관자놀이를 가로질러 내려놓았었습니다. 그 여자는 노란색 바지와 신발을 신었고, 그 무덤 옆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샤”씨의 아내가 그 여자를 달래려고 갔지만, 여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 사람. 내 사람...” 그렇게 여자는 자신의 “사람”을 계속 찾았습니다.

They told me that seven or eight days earlier, an old woman, around age fifty, had been sitting beside an isolated grave outside the village. She was wearing a dark blue gown and had braided her hair backwards in two plaits that went up her head in back and hung down across her temples. She was wearing yellow trousers and shoes, and she was crying mournfully beside the grave. Hearing her cries, the elderly Mrs. Xia went to comfort her, but she continued to cry, “Oh my person, oh my person...” and kept looking for her “person.”

마침내 그 여자는 울음을 멈췄고, 그 둘은 마을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분명 마을 입구를 지키는 정령이 있었나 봅니다. 그 나이든 여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마을은 울타로 둘러싸여 있었고, 4면에 각각 문이 있었습니다. “샤”씨의 아내는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나이든 여자는 문밖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Finally, she stopped crying and the two of them walked to the village gate. There must have been a spirit guarding the gate, because the old woman wouldn’t go in. The village was surrounded by a wall and had a gate on each of the four sides. Mrs. Xia went in, but the old woman stayed outside the gate, crying.

마침 그때 샤준상씨의 마차가 마을에 되돌아왔습니다. 마차가 문에 도달했을 때, 말이 그 여자를 보고는 겁에 주춤했습니다. 말들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차가 문을 통해서 지나가자 노파가 마차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 문을 지키는 정령이 뒤돌아 있

었는지, 혼란을 틈타 그녀가 몰래 들어갔습니다.

At that moment Xia Zunxiang's horse cart returned to the village. When it reached the gate the horse saw the woman and shied in fright, for horses can recognize things that people cannot see. As the horse cart went careening through the gate, the old woman followed it in. Probably the spirit who guarded the gate had his back turned, and in the confusion, she went sneaking through.

노파가 유종배씨의 집으로 달려갔고, 계속해서 그녀의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녀를 보고 비웃는 30~40명의 호기심 많은 구경꾼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유씨를 쳐다보고는 집밖으로 뛰어났습니다. “멍청한 노파같은니! 네 성이 뭐냐?”

The old woman ran to the house of Mr. Yu Zhongbao and continued to look for her “person.” She looked at Mr. Yu and then ran out of the house, where she was surrounded by thirty or forty curious onlookers who jeered at her, “Stupid old woman! What's your last name?”

“나는 성이 없다.”

“I don't have a last name.”

“그러면 이름이 뭐냐?” 그들이 물었습니다.

“What's your first name?” they asked.

“몰라. 난 송장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노파를 기형인듯 쳐다보았습니다. 노파는 사원산씨의 뒷벽에 닿았을 때까지 멍한 듯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모자를 8피트 벽 너머로 던졌고, 한 번의 점프로 그걸 바로 뛰어 넘었습니다. 누구도 그 벽을 점프해서 넘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해냈습니다. “저 멍청한 노파가 쿵푸를 좀 아는군!” 관중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그 노파를 보려고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I don't know. I'm a corpse,” she said. They looked at her as if she were a freak. She continued to walk as if in a stupor until she reached the back wall of Xia Wenshan's estate. She then threw her hat over the eight-foot wall, and in one jump, leapt right over after it. No one else could have jumped over the wall, but she made it. “The stupid old woman knows kung fu!” the crowd screeched, and they ran around and went in through the front gate to watch her.

24일에 귀의를 받은 사원산씨의 아들 샤준찬도 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그 노파가 우리 집에 있어요. 하지만 겁내지 말아요.”

Xia Wenshan's son Xia Zunquan, who had also taken refuge on the twenty-fourth, ran in

the door. “Mama! Mama! The stupid old woman is in our house, but don’t be afraid.”

그의 엄마가 창문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노파가 벽돌벽을 기어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반쯤 있고 바닥에 반쯤 있었습니다. “원하는게 뭔가요?” 그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His mother looked out the window, but saw nothing strange. When she turned around, there was the old woman crawling up on the brick bed. She was halfway on the bed and halfway on the floor. “What do you want?” shouted the mother, but the old woman made no reply.

그 노파의 이상한 행동거지를 보고서 그 엄마와 딸은 즉시 대비주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비주의 첫줄인 “나모허라다나도라에에”를 외우자마자, 노파가 땅으로 미끄러져서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고 누웠습니다.

Seeing the old woman’s strange behavior, the mother and her daughter began immediately to recite the mantra. Just as they recited the first line of the mantra, Na mo he la da nuo duo la ye ye, the old woman slipped to the ground and lay inert, exactly like a corpse.

그것을 보고서 그 가족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만일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죽었다면, 그건 좋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경관에게 갔습니다. 그 경관이 노파가 죽을듯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한 손으로 그녀를 들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심문하기 위해 마을 관청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왔는가?”

Seeing that, the family was greatly upset. If somebody were to die in their home, it would not be good. They went for the sheriff. When the sheriff saw the old woman lying on the floor as if she were dying, he picked her up with one hand and set her outside. Then he took her to the village courthouse for questioning. “Where are you from?” he asked, “and why have you come here?”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녀가 말하길, “난 송장이다. 나는 이름도 집도 없다. 나는 그냥 어디든 있는 곳에서 산다.”

“Don’t ask me,” she said. “I’m a corpse. I have no name and no home. I just live wherever I am.”

그녀의 이상한 말투와 행동거지에 놀라서 경관은 그녀를 관청으로 마을 밖으로 50보정도 데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을 입구로 돌아왔을 때, 노파는 그의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70보 데려나갔지만, 노파는 다시 그를 따라왔습니다. 마침내 그와 3명의 경관이 그녀를 마을 밖으

로 150보 데려나가서, “여기서 나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총에 맞을거요!” 그리고는 그들은 하늘을 향해 총을 두발 쏘았습니다.

Frightened by her strange talk and behavior, the sheriff escorted her at pistol point some fifty paces outside the village. But when he returned to the village gate, she was right behind him. He took her seventy paces, and she followed him back again. Finally, he and three deputies took her 150 paces outside the village and said, “Get out or get shot!” and they fired two shots in the air.

그 노파는 그 총소리가 예전에 자신을 파괴했던 천둥이라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노파는 이번에는 그들을 따라서 마을로 오지 않았습니다.

The old woman fell to the ground in terror, thinking the shots were thunder, which had destroyed her before. This time she didn't follow them back to the village.

경관과 사람들이 되돌아왔을때, 샤웬산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딸이 말도 안하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는데, 다만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침대에 누워서, 머리는 베게에 놓고, 하부는 허공에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7일 또는 8일간 먹지 않았습니다.

When the sheriff and his men returned, they heard that Xia Wenshan's daughter was sick—not speaking, eating, or sleeping, but just lying on the bed staring in rage with her head on the pillow and her bottom sticking up in the air. She didn't eat for seven or eight days.

샤웬산의 집에 가기 전, 나는 한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들다가 죽을거라 했다. 글썄. 나는 내 제자 중 하나를 안 구하느니 차라리 죽을거다. 우선 나는 나와 함께 귀의를 받은 사람들을 구해야만 한다. 가만히 앉아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 둘째, 나는 반드시 그 악마를 구해야 한다. 너는 그녀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분명 그녀를 제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파괴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그녀는 수년간 부지런히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날 죽일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 해도, 난 여전히 그녀를 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을 구해야 하고, 지금 그녀를 제압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많은 이들이 그녀로 인해 다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그렇다면, 나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것이다.”

Before we went to Xia Wenshan's home, I said to Han Gangji, “You said that if we tried to handle the matter we would die. Well, I would rather die than not save one of my disciples. First of all, I must save those who have taken refuge with me; I can't just stand by and let them die. Secondly, I must save the demon. You say no one can control her, but she has

committed so many offenses there's bound to be someone who can subdue her. If she were to be destroyed, it would be a great pity, for she has cultivated diligently for many years. Even if she has enough power to kill me, I'll still save her. Finally, I must save all living beings in the world, and if I don't subdue her now, in the future many people will be harmed by her. For these three reasons, then, I'm going to work."

바로 그때 경관이 우연히 우리 곁에서 노파가 악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쩐지!” 경관이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손으로 그 노파를 들 수 있었군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노파는 마구니였군요.”

Just then the sheriff happened by and overheard us saying that the old woman was a demon. “No wonder!” he exclaimed. “That’s why I was able to pick her up with one hand, just as if there were nothing there at all. It didn’t occur to me at the time, but now I realize she’s a demon.”

이제 우리는 그 마구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을까요? 능엄신주에 다섯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을 멸하는 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재난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면, 이 법을 사용해서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소로움을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상소롭지 않은 일을 상소로운 일로 바꾸는 겁니다. 소환하고 고리로 채우는 법으로 도깨비, 마구니, 귀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압하고 정복하는 법이 있는데, 찾아오는 어떤 마구니라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엄신주에서 이런 법들을 사용해서 이 여의마녀를 소환했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지독하고 메스꺼운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내 머리에 그녀의 마법 무기인 검정 모자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씌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둥근 공을 꺼내서 나를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나의 몸을 빗나갔습니다.

We then had to find the demon. How did we do that? There are five kinds of dharmas in the Shurangama Mantra. One is the dharma for extinguishing calamities. If you are due to suffer a calamity, you can use this dharma to avert it. There is also the dharma for creating auspiciousness, which turns inauspicious events into auspicious ones. With the dharma of summoning and hooking you can catch goblins, demons, and ghosts no matter how far away they are. There is also the dharma of subduing and conquering, which allows you to subdue any demon that comes. I employed these dharmas from the Shurangama Mantra to summon the As-You-Will demon woman. When she entered the room, she had about her an intense and nauseating stench. She came in and tried to put her magic weapon—the

black hat—on my head, but couldn't get it on me. Then she took out her round balls and tried to hit me, but they missed my body.

그녀의 마법 무기는 둘다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끝났음을 알고, 도망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가려하든 감히도록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웠습니다. 팔부신중의 신, 용과 다른 이들이 왼쪽, 오른쪽, 앞, 뒤, 위, 아래에서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도망갈 수 없음을 알고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Both of her magic weapons had failed. Knowing she was finished, she turned to run, but when she first arrived, I had set up an invisible boundary that would trap her no matter where she tried to go. The gods, dragons, and others of the eightfold division of Dharma-protectors watched her from the left, right, front, rear, above, and below. Seeing that she couldn't get away, she knelt and wept.

나는 그때 그녀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나는 사성제, 십이연기, 육바라밀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해했고, 보리심을 발해서 삼보에 귀의하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금강여의여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I then spoke the Dharma for her. I explained the Four Noble Truths, the Twelve Causes and Conditions, and the Six Perfections. She immediately understood, resolved to realize Bodhi, and asked to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I accepted her and gave her the name Vajra As-You-Will Maiden.

그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본적인 구성이 마구니였으며, 그래서 어디에 가든 압도적인 악취가 따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을 보고, 그녀를 일만성자의 절묘한 동굴 속에서 수행하도록 지린지역 자오허현의 레이파 산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기묘하고 독특한 많은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수행하게 했습니다. 나도 또한 거기 간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정진했고, 금세神通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을 구했을 때,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다른 이가 알아주길 바란다면 그건 진실로 좋은게 아니고, 악한 일을 다른 이가 알게 될까봐 무서워 비밀로 하는 것은 진정으로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She followed me around to save people, but her basic make-up was that of a demon, and no matter where she went she carried her overwhelming stench. Seeing that it wouldn't do for her to follow me, I sent her to Leifa Mountain in Jiaohe County, Jilin Province, to cultivate in the Exquisite Cave of the Ten Thousand Saints. I have sent many of my strange and unusual disciples there to cultivate, and I have also been there myself. She cultivated

vigorously and soon attained spiritual powers and could rescue people. When she rescued them, she didn't like it to be known, since good done hoping others will know is not true good, and evil done in secret for fear that others will know is truly great evil.

그렇게 전직 마녀가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Thus, the former demon woman became one of the Buddha's followers.

어째서 그 동굴을 “일만성자의 절묘한 동굴”이라 부를까요? 절묘하다고 불리는 것은 서로 보이는 세 개의 입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마치 유리잔과 같아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고, 안에서 밖도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동굴 입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벽돌로 지어진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은 가파른 산기슭의 바위 위로 염소의 등에 벽돌과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지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벽돌 두 개 또는 나무 한 조각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동굴 서쪽 입구에는 라오즈의 동굴이라 불리는 또 다른 동굴이 있었습니다. 동쪽 입구에는 일만명의 사람과 말을 마실만큼 충분한 물을 떨어뜨리는 “드립핑 워터(한자이름모름)” 동굴이 있었습니다. 뒤쪽 동굴에는 만주 출신의 지샤오타릭의 이름을 따라서 “지조사”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명나라 시대에 다섯 명의 귀신을 제압했는데, 그중 하나가 검정 물고기 정령이었습니다. 검정 물고기 정령은 명나라 때 “위대한 검둥이”로 불리던 베이징의 한 관리였습니다. 그의 성이 검정(한자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 아니라 물고기였습니다. 지샤오탕은 그걸 알아서, 그를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검둥이”가 산을 지나갈 것이란 걸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지샤오탕은 손바닥에서 천둥을 풀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Why is the cave called the “Exquisite Cave of the Ten Thousand Saints”? It's said to be exquisite because it has three entrances which are mutually visible to each other. It's like a glass cup, in that one can see in from the outside and out from the inside. The three entrances to the cave are mutually connected. Inside the cave there is a temple made of bricks and lumber that were carried up the steep mountain crags on the backs of goats. One goat could carry two bricks or a piece of lumber at a time. Off the western entrance of the cave, there is another cave called the Cave of Lao Zi. Off the eastern entrance is the Dripping Water Cave, which drips enough water to satisfy a troop of ten thousand men and horses. The cave in the back is called the Cave of Patriarch Ji, named after Ji Xiaotarig, a native of Manchuria who, in the Ming Dynasty, subdued five ghosts, one of whom was the Black Fish Spirit. The Black Fish Spirit was a Ming Dynasty official in Beijing called Blackie the Great. His last name was Black, but he wasn't a human; he was a fish. Ji Xiaotang knew this and was determined to capture him. He knew that “Blackie” would pass by the

mountain one day, and so he waited for him. When he passed by, Ji Xiaotang released thunder from the palm of his hand and killed him.

아무도 레이파 산에 동굴이 몇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셀 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오늘은 72개, 내일은 73개, 그 다음날엔 70개.

No one actually knows how many caves there are in Leifa Mountain. Each time you count them, the number is different—seventy-two today, seventy-three tomorrow, and seventy the day after that.

하루는 한 남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 동굴 속에서 두 노인이 장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침을 하자, 긴 수염의 두 노인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왔지?” 그러더니 돌로 된 문이 스스로 닫혔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에게서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 마침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도 “돌문 동굴” 밖에서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했습니까!

A man once went there and saw two old men playing chess in a cave. When he coughed, the two long-bearded men said to themselves, “How did he get here?” and then the stone gate of the entrance closed by itself. The man knelt there seeking the truth from them until he finally died. His grave may still be seen outside the Stone Door Cave. How sincerely he sought for the truth!

그 산에는 많은 정령과 신선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리밍푸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쿵푸를 통달했으며, 원숭이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한번은 내가 새벽 4시에 그 동굴에 갔었는데, 그가 부처님께 절하고 있었습니다. 감아본 적이 없는 그의 머리는 머리핀으로 받쳐져 대여섯 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눈, 코, 입 등 얼굴 생김새와 몸은 매우 작았지만 몸은 튼튼했습니다. 보통 사람 8명은 있어야 옮길 수 있는 철로를 두개나 그는 혼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각 팔 밑에 트랙 하나씩 집어넣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는 내가 거기서 만난 기묘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There are many spirits and immortals up in the mountain. One was a man named Lee Mingfu, who had mastered kung fu and could run as fast as a monkey. Once I visited the cave at four in the morning and saw him bowing to the Buddha. His hair, which he never washed, was held by a hairpin and matted in a lump that weighed five or six pounds. His facial features—eyes, nose, and mouth—and his body, were very small, but his body was strong. He alone could carry two railroad tracks so heavy that eight ordinary men would be needed to carry one; he would tuck one track under each arm. No one knew how old he was

or where he was from. He was one of the strange men I met there.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좋습니다. 만일 믿지 않아도, 그것도 또 괜찮습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These are not stories that I made up; they are true events. If you believe them, fine. If you don't believe, that's also fine. It's all up to you.

회향계 廻向偈

원이차공덕, 장엄불국토,
願以此功德, 莊嚴佛淨土
상보사증은, 하계삼도고
上報四重恩, 下濟三途苦
약유견문자 실발보리심
若有見聞者 悉發菩提心
진차일보신 동생극락국
盡此一身報 同生極樂國

Verse of Transference

May the merit and virtue accrued from this work,
Adorn the Buddhas' Pure Lands,
Repaying four kinds of kindness above,
And aiding those suffering in the paths below.
May those who see and hear of this,
All bring forth the resolve for Bodhi,
And when this retribution body is over,
Be born together in the Land of Ultimate Bliss.